朝鮮日報
夕刊
十一日(水)
本紙朝夕刊十面

伊全土一千萬人의 國家總動員實施
伊國民軍威力을全世界에示威코저
『뭇솔리니』首相命令
에國攻擊과同時實施?

【羅馬十日發聯合】뭇솔리니首相은 팟시스트黨員二百五十萬、勞働群少年團總計一千萬人을動員하야國家總動員으로示威를敢行키로決定하고 十日全國에豫告하얏다 動員演習期日은 에디오피아國討伐行動開始當日又는直前으로解釋된다

【電通羅馬十日發】뭇솔리니首相의 全팟시스트 模擬總動員實施命令은 伊太利國民軍의 威力을 全世界에 示威하는 것이라고 說明하고 잇스나 一般은 이 模擬總動員 實施期는 伊太利軍이 에디오피아를 攻擊할 時期와 一致되리라고 信하고잇다 (寫眞은 뭇솔리니氏)

【電通羅馬十日發】伊太利의 模擬總動員計劃은 팟시스트 團體뿐으로 正規軍은 이미 事實上 總動員되여잇슴으로 이에 包含되여잇지안타 그리고 動員될 新部隊中에는 最近政府의命令을 受한 十八歲乃至五十五歲까지八百萬의 팟시스트團員도 加入되여잇다

에國境線에向해 伊軍行動開始
에國政府의通牒全文

【쥬네브十日發聯合】에디오피아政府는 十日 쥬네브駐箚代表部를 通하야 伊太利軍의 軍事行動에 關한 通牒을 聯盟事務局에 提出하엿는데 通牒全文은 左와如하다

北部諸州로부터 에디오피아政府에 到達한 報告에 依하면 伊太利軍의 有力部隊는 에리트리아 國境線에 沿하야 行動을 開始하엿다 如斯한 大規模의 伊太利軍의 軍事行動에 徵하야 伊太利軍이 早晩攻勢를 取하리라는것은 推測하기에 足한일이다

伊遠征部隊 歡呼裡나폴리出港

【나폴리十日發聯合】伊太利政府는 雨期終了를압두고 東阿植民地에 續續遠征部隊를 增派하고 잇는바 正規軍一千五百名은 十日午後 레오날드다빈치號에 搭乘하고 市民의 熱狂的歡呼裡에 나폴리를 出帆하야 맛사와로向하엿다 今後에도繼續하야 續續派遣部隊를 增派할 方針이다

五國委員會不承認
伊『마』議長에게通告
끗까지否認하면理事會는勸告案作成
聯盟을根本的否認態度

【電通쥬네브十日發】伊에紛爭에 對한 和協手段은 理事會의 任命한 五個國委員會의 手中에移讓되엿는데 伊太利政府는 同委員會의 紛爭介入權을 認定치안코 此를完全히 뽀이콧트하기로 決定하엿다고 確聞되다 即伊太利側에서 聞知한바에依하면 아로이지伊代表는 마다리아가委員長에對하야 伊太利는 理事會가 五國委員會의 任命投票를 行할時에 棄權하여잇고 또英國은 紛爭에 利害關係를 가지고잇슴으로 同國의 委員會參加에는 反對인 故로 伊太利로서는 委員會를 認定할수가업다고通告하엿다한다 그러나 委員會는 伊太利의 態度如何에 不拘하고 이를繼續하야 今週末에는 伊에兩國에對하야 和協方式의 具體案을 提示할것으로 豫想되여잇고 萬若 伊太利가 委員會案을 否認하면 委員會는 此를 理事會에 提出하야 規約第十五條第四項에 基한 勸告案作成態度에 出할 것으로 豫想되는데 伊太利가 五國委員會의 和協案을 認定하는지 안는지는 同國이 聯盟그自體를 否認하는가 안는가하는 重大한 態度表示로되는 것이다 (寫眞은 아로이지伊代表)

에國皇帝受諾 마委員長의通告를

【쥬네브十日發聯合】에디오피아政府代表部를 通하야 五人委員會委員長 마다리아가氏의 通告에 對하야 에디오피아皇帝는 十日 에디오피아政府의 正式回答을 發表하야 應諾한다는 旨를 正式回答하엿다 에디오피아政府의 回答要旨는 左와如하다

一、에디오피아政府는 七日 마다리아가委員長의 通告를 應諾하야 五人委員會의 任務繼續中은 委員會의 事業을 障害하거나 又는 期待에 反하는 行動을 取치안키로 誓約함

一、同時에 에디오피아政府는 國境地帶에잇서서 伊太利軍의 行動에 關하야 抗議를 發한데 鑑하야 五人委員會의 善處를 希望한다

五國委員會 危機直面
伊全的無視態度로

【電通쥬네브十日發】聯盟理事會五國委員會는 十日午後五時부터 六時半까지 非公開會議를 開催하고 먼저 委員長 마다리아가 西班牙代表로부터 兩當事國代表와의 會見顚末을 報告하야 伊太利側과 委員會와의 折衝經過가 極히不滿足하엿다는旨를 述하야 伊太利代表가 四日의 行動自由留保의 聲明及 六日의 五國委員會設立 採決의 不完全방패로 五國委員會를 全然無視하는 態度를 敢行하엿고 에디오피아側은 이미 委員長의 提議를 應諾하여잇슴에도 不拘하고 現今 五國委員會는 當初의 使命인 和協解決策을 作成하기는 거이 不可能하게되여 事實上 潰滅同樣의 危機에逢着하게 되엿다는 旨를 明白히하엿다 그리하야 委員會는 極度의 悲觀的空氣가운데에서 善後策을 協議하야 如左한 結論에到達하고 散會하엿다

一、只今까지의 兩當事國과의 交涉經過 其他 委員會의 諸活動을 詳述한 報告書를 作成하야 理事會에 提出할것

一、伊太利代表가 委員會를 相對로 하지안는것은 委員會의 活動繼續에 最大의 障害를 齎來하는故로 理事會에 對하야 委員會가 要求하는 使命을 完了케하기 爲하야 이 障碍除去를 考慮하도록 要請할것

一、委員會는 十一日 總會에잇서 英外相의 演說 其他에 依하야 列國의 對紛爭態度가 一層 鮮明하게됨을 기다려 다시 和協手段을 考究할 方針으로 十二日 再次 會合할것

一、委員會內에 設置한 小委員會의 活動繼續에 關하야 伊、에 兩國의 主張說明書 檢討事業은 그대로 繼續完成케하고 이러케하야 第十五條 第四項의 理事會勸告를 適用할 境遇에 作成할 報告書에 包含식힐수 잇도록 準備하여둘것

佛中途半端的態度를 이든英代表詰難
로카르노條約再考意思暗示
伊行動牽制協作慫慂

【電通쥬네브十日發】호어英外相 라발佛首相兼外相의 第二次會談은 十日午後七時부터八時十五分까지 繼續하엿는데 이든代表는 右會談에 잇서서 英國側 聯盟支持態度의 必要를 强調하고 終始攻勢로써 英佛共同動作으로써 伊太利의 行動을 牽制하여야될것을 佛首相에게 詰難하야 順當한 길로가면 當然 强制로 突進하게 될것이라 하야 最近佛國의 中途半端的態度가 伊太利側의 對聯盟作戰을 去益不可能케 하는有力한 原因이 되여잇는것을 暗示한바 佛首相은 歷歷辨明에 窮하야 우물주물하엿다는바 兩氏는 英國이 歐洲大陸의 問題特히 그 平和保障에 關하야 如何한 程度까지 關與할것이라는見解를 協議의 中心으로하야 只今까지 英國은 로카르노條約及 國際聯盟規約을 英國의大陸關與의 單位를定할 尺度로하여왓스나 萬若佛國이 今回의 伊에紛爭에 對하야 聯盟機構의 實際上崩壞를 招來하는것을 不顧한다가는 英國으로서는 聯盟機構維持에 佛國과 協力하지안흘것은 勿論 나아가서는 로카르노條約支持에 對하여도 英國으로서의 再考를 必要하게될旨를 暗示하야 伊太利와의 暗默的으로 걸려잇는 佛首相에게 一痛釘을 주어巧妙한 論法으로서 佛國의 對英接近 傾向促進에 重要한 拍車를 加한것이라고 信한다

蔣氏對日政策에對해 顏惠慶氏重大警告
和協政策繼續하면國際的影響極重大

(寫眞은 顏氏)

【北平十一日發聯合】某所着情報에依하면 顏惠慶氏는 最近蔣介石氏에게 左의意味의 長文의電報를 發하야 그對日政策에 對하야 一大警告를 試하엿다고 傳한다 貴委員長(蔣氏를指稱)과汪院長과의 最近의 會見結果가 對日和協政策의 繼續 特히貴委員長으로부터 汪兆銘氏의 對日方針의 全幅支持表明說等이 事實이라고하면 國際的影響이 極히 重大하야 그表現方式 具體策決定等에는 充分注意하기를바란다

蘇聯의對抗策을指摘

萬若 全幅的으로 日本과의 提携가 決定되고 이것이 何等의 形式으로 具體化할時에는 蘇聯은 直時 積極的으로 그建策妨害策을 取할 것인바 그方法으로 爲先 新疆省의 獨立 外蒙古의 赤化를 急速斷行하고 繼續하야 甘肅 寧夏等의 積極的進出을策하고 中國共產黨에對한 援助를 强化할것이라고云云하엿다 右는 所謂歐米派一派의 策動의 一端이라고 볼것이다 四川共產軍討伐에 從事하고잇는 蔣介石氏에 對하여는 相當한 牽制力을 갓는것이라하야重視되여잇다

山西省의土地村有 斷行키로正式決定
閻錫山氏의對共產軍策

【北平十一日發聯合】太原來電에依하면 太原綏靖主任閻錫山氏는 去九月一日부터 山西省內二十一縣의縣長 二十一名을 太原에招集하고 前後九日에 亘하야 共產軍에 對한 防衛策을 協議한 結果 十日에 이르러마침내土地村有를 斷行하기로 正式決定하엿다 決議의 要旨는 左와如하다

一、共產軍防衛의 根本方針으로 公債를 發行하야 土地林有에 歸케하야 耕作者에 權利를 有케하야 土地私有의 缺陷을補合

一、土地林有權에 對하여는 直時南京政府에 移牒 承認을求하야 實行한다

伊戰端開始 宣傳을布告안코
英外交界의觀測

【倫敦十日發聯合】五人委員會에對하야 伊太利政府의 不協調態度에 伊에兩國戰端開始는 거이 旣定事實이라고 觀測되는데 倫敦外交界의 觀測에 依하면 뭇솔리니首相은 九月中旬 宣戰을布告하지안코 開戰을 斷行하리라는意見에 一致되여잇다

人事·集會

◀宇垣總督 矢野秘書官을帶同하고 十二日午後十一時京城驛發咸南平南北視察次出發

專任遞相問題 望月氏에落着
親任式은十二日에

【電通東京電話】專任遞相問題에對하야는 十一日 岡田首相으로부터 望月圭介氏에게 正式交涉을行하야 아주齊着되고 十二日午前 宮中의 御事情을보아 首相은 葉山御用邸에伺候 天皇陛下에 拜謁仰付內奏 御裁可를經하야 同日中에 葉山御用邸에서 首相侍立으로 左와如히 親任式을行하기로되엿다

任遞信大臣 從三位勳一等 望月圭介
內閣總理大臣兼遞信大臣 免兼官 岡田啓介

八面鋒

◇東阿의角逐은 地中海로、地中海의爭覇는 歐洲로、이래저래 世界大戰의 幻像은자라간다。

◇沈默靜觀을 固守하는 獨逸이 植民地問題로 近近 어떠한聲明을하리라고、褐은黑의軟色、『뭇소리니』와『히틀러』의 相通은잇슬듯한일。

◇望月中에도 大望月인 仲秋明月節에 『望月』이 寒閣에 올르게되다고。

◇不暑不寒하야 季節은 조흐나 秋風부는 岡田에 月色이 한層더 『센티멘탈』하지안흘가。

◇京城府에 編入與否로 永登浦邑議에서 甲論乙駁。

◇大京城、大平壤、大咸興等等、大字의 大流行時代。

◇自然膨大인가 遺作膨大인가는 別問題로하고、都市만 커가면 村落은 어지될것인가。

希臘政情依然騷然
共和派의內相辭職

【電通아데네十日發】콘딜리스首相과 衝突한 第一軍團長파니가 오라코스將軍은 마침내 辭職하엿는데 後任에는 찰다리스首相이 就任키로되엿다 이리하야希臘政情은 騷然하야 政府에서는 各가운 時期에 閣議를 열고善後措置를 講究할터인데 政局에對한 豫想이 서지안허 今後推移는 자못 注目되어잇다

【電通아데네十日發】希臘政府內의 帝政即時實施派와 共和派와의 軋轢에 關聯하야 共和派에 屬하는 데리크래스內相은 十日에 辭職하엿다

軍縮委員長으로 蘇代表리氏推薦

【쥬네브十日發聯合】十日午後開會한 聯盟總會幹部會는 軍縮委員會를 任命하기로 決定하엿는데 右委員會는 蘇聯代表리트비노프氏를 委員長에推薦할터이다

話題解說 『란즈베리』

◇現在 倫敦에서 열린 英國勞働組合大會에잇서서 勞働組合幹部와 勞働黨議員派와의 意見對立으로 勞働黨首領 란즈베리氏는 辭職을 申請하엿다 한다 傳하는바에 依하면 伊에紛爭에 對한 英國의 對策이 對立의 直接原因이라고하는데 勞働黨議員派側은 聯盟의 原則에 依하야 强硬한 態度로 臨할것을 主張한데 對하야 組合幹部側에서는 制裁規定適用 或은 스에즈運河의 閉鎖로써 伊太利와 戰爭에 對抗할것이라고 主張하야 란즈베리氏가 辭表를 提出한것이라한다。

◇죠지·란즈베리氏는 一八五九年 英國 써폭크의 一鐵道工夫의 아들로 태여나 十四歲時 倫敦으로 移住하야 給仕 外交員 農夫等의 勞働에 轉轉하는 동안에 組合運動에 加擔하엿다 一八八四年 濠洲로 건너가 勞働에 從事하다가 一八九二年 社會民主黨에 加入하다 其後地方救貧法委員과 救貧法調査勅命委員을 歷任하고 一九一二年에는 勞働黨機關紙 데일리헤랄드에 參劃하야 二二年까지 主筆로 在職 大戰後에는 反戰論을 主張하다가 二次나 下獄되엿다 一九一〇年에는 勞働黨代議士에 當選 一九一八年에는 失敗 二二年에 再選되여今日에 及한다

◇란즈베리는 一九二四年부터 勞働黨內閣에 不滿을품고 中間派左翼陣營을 固守하면서 以來 獨立勞働黨의 首領의 한사람으로 右翼과對立的態度를 取하여온것으로 보아 今般勞働黨의 形勢에 不滿을품고 組合幹部와 獨立勞働黨의 立場을 取하게된것은 同黨의 前途에 對하야서 極히注目되는現象이다

聯盟總會第三日
伊에紛爭에對해 『호』英外相演說
各方面의注目발서集中!
十一日午前에開會

【電通쥬네브十日發】聯盟總會第三日은 十一日午前十時 三十分(日本時間十一日午後六時三十分)부터 開會 먼저 호어英外相의 에디오피아 問題에 對한 英政府의 態度宣明을 端初로 드되어 同問題의 討論에 入할豫定이다

【電通쥬네브十日發】호어英外相은 十一日午前十一時 聯盟總會席上 英國의 立場을宣明할演說을 行하겟다는 通告를 發하얏는데 라발佛首相은 이에압서서 聯盟事務當局에 對하야 十一日의 演說을 取消하엿다 호어英外相의 演說은 伊、에紛爭에對한 英國政府當局의 最近의 意向을 表明하는 것으로써 各方面의 注目이 集中되여잇다

總會議事日程

【쥬네브十日發聯合】聯盟總會幹部會는 十日午後六時 베네쉬議長 司會下에 開會 總會의 議事日程을 審議하고 左와如히 決定하엿다

一、事務總長의 年次報告에 關한 討議는十一日午前 十時半부터 開始하야 英國代表호어外相 에디오피아代表 데글리와리아즈公使 中國代表 顏惠慶大使 濠洲代表 스탄리불루스氏 諸國代表합바라 콘드外相의 順序로 所見을 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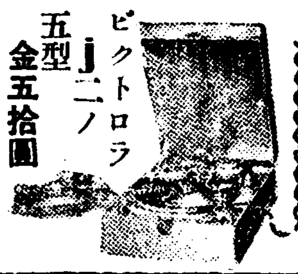
一、常設國際 司法裁判所 判事故安達峰一郞博士의 後任選擧는 九月十四日에 執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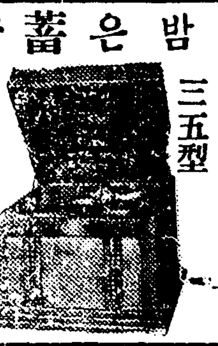
一、非常任 理事國後任國 選擧는 九月十六日에 執行함

蘇聯代表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長은 九日 副議長選擧에際하야 落選되엿슴으로 幹部會에서는 善後措置에對하야 協議하고 波蘭代表고메즈氏가 副議長을辭任하고 蘇聯代表에게 讓步한다고 提議하엿스나 協議한結果 特히 蘇聯代表에게 副議長의 資格으로서 幹部會에出席하기를 要請하는데 意見一致되엿다

길고긴가을밤은蓄音器로 蓄音器는絶對優秀한빅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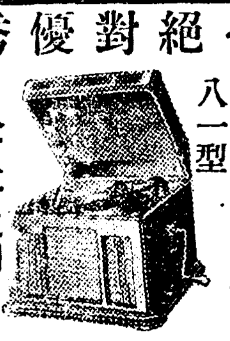
ビクトロラJ二ノ一〇型 金參拾五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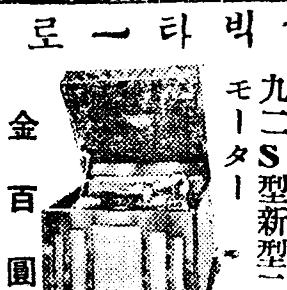

ビクトロラJ二ノ五型 金五拾圓


ビクトロラJ一ノ三五型 金參拾五圓

ビクトロラJ一ノ五一型 金五拾圓

ビクトロラJ一ノ七一型 金六拾五圓


ビクトロラJ一ノ八一型 金八十五圓


ビクトロラJ一ノ九二S型新型二連モーター 金百圓

ビクトロラJ一ノ九二E型新型電氣モーター 金百貳拾五圓

빅타-는 山口支店에
빅타-레코-드는 洋樂邦樂鮮譜 全部다 具備되엿슴니다
京城鍾路永保ビル 山口樂器店 鍾路支店 電話光化門四八六番 振替京城二二七六番

몬저 就職
조흔講義를選擇하야 배우는것은 半成功이라도 갓다。諸君一日이라도빨니 就職하야 立身成功하라

巡査となる早道
警官가티 愉快한職務는업다 人民保護의榮職으로 社會의尊敬을밧고 昇進하야 加俸恩給 等特典만타 內地各府縣及滿洲警巡査志願者는 合格率百%의 本會講義錄으로 準備하야 合格하라 ●見本 과規則書는申込次第進呈함 東京市牛込台町五 日本警務教育會

藥種商となる早道
藥業界는 將來益益有望 僅少한費用과 工夫로 自宅獨習되는 合格률 어더藥種師와가티 益益發展의길이 잇슴 藥種商이되라。男女學歷年齡不問全國受驗自由 ●見本과規則書는申込次第進呈함 東京市牛込台町五 藥種商受驗講習會

鐵道員となる早道
一般部外者에서 大募集 當校卒業後 受驗合格하면 鐵道員이되야 順次昇進榮達할 就職希望者는 本會의講義錄으로 受驗파스하라 每年合格者多數禮狀續續來함 ●見本과規則書는申込次第進呈함 東京市牛込台町五 帝國鐵道教育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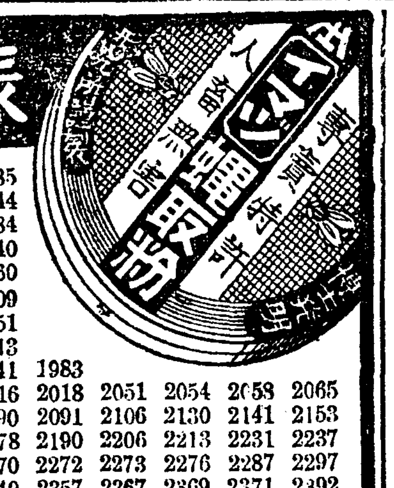
郵便局員電信 早道
官費工夫僅一ケ年卒業 每年數回全國各地서 大募集 官費工夫卒業後就職絶對安全 昇給迅速 出世의 官立學校인 獨學靑年成功의 龍門 十四歲以上二十五歲까지 男女受驗됨 ●見本과規則書는申込次第進呈 東京市牛込台町五 日本遞信教育會

飛行家となる早道
大空의 英雄 아나오라 陸海軍少年航空兵志願者는 勿論民間飛行士又는機關士로서오는 飛行時代에 活躍하려한 諸君이여오라 見本과規則書는 申込次第進呈함 東京市牛込台町五 日本飛行教育會

運轉手となる早道
나도되고십픈 運轉手 習校卒業 短期工夫 로合格收入 技術잇고 男性의 的職業 本會講義錄 으로스피드 工夫 하야短期에合格 하라
●見本과規則書는申込次第進呈함 東京市牛込台町五 日本自動車教育會

恩給 長期低利 他에比較업는 利用簡便 特色은照會 京城府長沙洞一六〇 鄭商會

ツマイ製品五十万円大景品·第二回當籤發表



各組共通當籤番號
(當籤者には夫々當籤通知狀を發送)

壹等 (五帖) 綾八端座蒲團
195 1270 1319

貳等 (一本) 絹張晴雨兼用女洋傘
123 410 755
1292 2096

參等 (一着) 三越特選割烹着

2	33	41	478
664	795	839	866
986	1000	1005	1056
1063	1302	1318	1375
1530	1678	1984	2110
2226	2359	2387	2451
2705	2743	2883	2937
2970	2983		

四等 (一個) 味の素附容器食卓

1	6	13	20
92	98	116	129
142	227	271	301
311	320	370	383
411	425	506	660
681	685	703	740
749	854	864	945

1011	1023	1024	1046
1172	1206	1210	1214
1222	1249	1291	1324
1376	1393	1459	1465
1470	1613	1640	1750
1759	1784	1822	1830
1938	1953	1964	2149
2236	2240	2248	2251
2321	2335	2385	2399
2423	2441	2490	2516
2544	2568	2667	2689
2738	2777	2778	2804
2845	2879	2901	2905

五等 (一組) 毛糸編物修理機

17	27	94	99
113	119	143	150
154	166	168	212

231	252	253	298
352	384	405	412
427	430	454	468
475	482	489	504
505	526	539	542
547	564	574	588
598	601	605	640
645	672	689	709
721	763	785	789
793	808	817	835
868	869	879	885
886	889	896	897
902	915	922	943
971	1013	1015	1017
1025	1061	1069	1079
1088	1112	1125	1142
1163	1182	1186	1209
1219	1232	1303	1320
1325	1335	1337	1338
1347	1349	1360	1377

1378	1383	1385					
1422	1437	1444					
1449	1474	1484					
1509	1537	1540					
1658	1659	1660					
1701	1705	1709					
1717	1743	1751					
1804	1812	1913					
1924	1933	1941	1983				
1998	2009	2016	2018	2051	2054	2058	2065
2080	2085	2090	2091	2106	2130	2141	2153
2160	2167	2178	2190	2206	2213	2231	2237
2244	2246	2270	2272	2273	2276	2287	2297
2299	2328	2349	2357	2367	2369	2371	2392
2398	2435	2436	2440	2454	2482	2503	2504
2524	2535	2546	2556	2557	2577	2586	2598
2608	2611	2688	2698	2701	2714	2725	2734
2788	2792	2822	2831	2838	2842	2864	2922
2946	2948	2954	2958	2973	2977	2978	2979

大阪市·大仁本町 今津化學研究所

男子 性器强大 早漏防止器
日米佛特許에서大好評인新案ポケット用理想器特價一圓半說明書進呈
直輸入品專門取扱 京城堅志洞五五 三寶商會 振替京城一八八一四番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紙袋製造를 副業으로 本業으로
百圓前後의資本으로 月百圓以上돈버는 紙袋製造의專屬 製造者急募集
僅少한資本으로 生活安定이되는 紙袋의製造는 至極히簡單하야 婦女子에도 其日부터從事할수잇다 需要는 日加月增함으로 從來의手帖方法으로는 到底히供給을 充當하지못한다。그럼으로 今般弊店이 提供하는製袋機는實際스피-드時代에 相應한 便利한 機械로서 弊店의 專屬製造者로서 永久히 取引希望하는 신분에게 限하야 特別價格으로 提供하고 製品에 對하여는 四季를通하야 製造를依托하고完成品은 現金으로 永久取引을하며 萬一弊店이 作業中止 又는製品의買取를 拒絶한境遇에 機械는 買價로서 買取하고 目下需要激增에 對한 供給이 相伴치못하고 恒常物品不足을 느끼고잇슴으로 玆에製造者를急募할 必要에 切迫하엿다。多幸히 弊店의 主旨에 共鳴하야주신분은 이特價提供의 絶好機會를 利用하시와 前途有望한 製袋事業에 從事하야주심을 懇切히推奬한다。弊店은 多年間實際的經驗을 體驗하고 斯業界에 權威者로서 指導的地位를占하야、業態이날노向上되며 鞏固한基礎上에 確實히 營業을 繼續하고잇다。案內書는 弊店營業方針의 信條임으로 記載의事項은 大小量不問하고 全部責任으로써 履行함 決코期待를 저바리지안合 (五錢切手同封照會하시라 案內書無代贈呈)
大阪市西區本田一ノ二 合名會社 千代田商事本店 電話西(七三)二九一番 (七三)二九八番
支店 名古屋市中區東山町四ノ一九番

滿洲移民地遂決定
明春、千七百戶輸送
綏化、柳河、營口의三個所에
經營은東亞勸業에委任

총독부의 만주대이민사업의전초(前哨)이민이라할 금년도 아천호이민계획의 실시에 대하야는 그간 이민후보지로 영구전장대(營口田庄台)의현농촌과 북만유화현장하진(綏化縣長河鎭)의농장은공을 확장하는동시에 봉천성 류하현 삼원포(柳河縣三源浦)에 새로경지를 매수하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그간세곳의토지매수 교섭을 진행중이든바토지매수도 최근대체 끗낫슴으로 물원에 농장건설에 착수하게되엿다한다 그런데 세곳농장의확장 또는 신설에잇서 각기 면적과 이민수용능력을 보면 영구의 현농장에 이천오백정보를매수 확장하야 이곳에 일천이백호(천명을 수용하고 유화농장에는 약팔백정보를 매수확장하야 삼백호약일천오백명을 수용하고 또 류하현의 새농장에는 사백정보를 매수하야 이백호일천명을 수용하야 새농촌을 건설하게되엿다 결국세곳을합하야 삼천칠백정보의 경지에 일천칠백호 팔천오백명의이로 물을 금년안에 수용하게될터이라한다 그런데 최초의 계획인이천호일만명이민계획보다 삼백호 일천오백명이 적어진것은 금년은예산이 부족하야 전긔의 정도에끗치게되엿다는데 총독부에서는이민한호에 대하야 팔백원내지일천원 정도의보조를 이민대행긔관인 동아권업공사(東亞勸業公司)에 주어농민에게 이주비거주비 농경자금등을 대부하게한다고한다 또이민의 수송실시는 금년겨울동안에 경남북전남북강원도의 오도에서 주로재해리재민을 선발하야 명년봄이월하순부터 삼월초까지에 각지전긔세농장으로 수송할터이라한다

遼河岸에萬數千
朝鮮人部落完成
醫療機關도擴充할터

총독부의 조선인만주 이민농장중에는 가장규모가 크고도긔호수리(水利)교통등 모든점에잇서매우유리한 지점에잇는 영구(營口)농촌은 현재농경지 면적이약이천오백정보에 수용한 이민이약륙천명에 달하는데 전긔가리 다시금년도 이민으로 명년삼월조에 약륙천명을 수용하게되엿슴으로 최근다시 이천오백정보의 농경지를 확장하게되엿다 그리하야 결국영구 농촌은오천정보의 경지에 약이천오백호일만이천명의 농민을 포용하게되여 료하(遼河)하류만망한대평양에 조선인의 대부락이형성되는셈으로 명년에는 이농촌에는 의료(醫療)긔관의 확장과 보통학교의 내용충실등을 도모하야 형식과 내용이다 기타 모범적대농촌으로 발전되리라한다

頻發하는土兵
慈城對岸에襲來
應援隊出動하야擊退

【警務局着電】구일 오후오시경에 두목 천하호(天下好)점산호(占山好)의 항일무장단 오십명은 평북자성서법동(慈城署法洞)주재소대안 즙안현대수지대(輯安縣大水地帶)를 습격하려고 이동하야 오는것을 대수지대경찰관파출소원 세명이 이것을막다가 포위되야 응원을 법동주재소에 청하야 왓슴으로 즉시법동주재소에서는 시전(柴田)순사이하륙명과 법동에대긔중인 특별경비대 산목(山木)순사이하 칠명합 계십삼명이 대수지대에 건너가서 그곳파출소원과 협력하야 그무장단과 교전약십오분만에 두도구(頭道溝)방면으로 격퇴식혓다한다

朝共同盟事件
廿七日公判

【咸興】오는이십칠일 제일회공판을 개정하기로 결정되엇든 정태옥(鄭泰玉)등 사십사명 피고의 조선공청동맹(朝鮮共靑同盟)사건은 검사의 분묵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시오는 이십칠일로 연긔되엿다한다

郡部自動車取締

경긔도경찰부에서는 교통규칙위반자를 업시하고저 가끔 불시로 자동차검사를 행하여오든바 구일 십일량일 경춘(京春)가도광주(廣州)가도기타군부일대에자동차검사를 하엿는데 이틀동안의 조사결과 발견된 규측위반건수는 다음과갓흔건이라한다
▲積載量超過二 ▲定員超過三 ▲許可線路外運轉二 ▲速力超過二 ▲無免許運轉三

通義洞小火

십일일오후 한시오십분경 부내통의동(通義洞)오십일번지 김창선(金昌先)의집에서 불이나서 방한간을태우고 곳진화하엿는데 원인은 불을 너머만히땐데서부터 이라한다

控訴中의中央生
兩名八月役求刑
한명은선생의사생활을공박
辯護人은輕刑을主張

중앙고등보통학교 학생 소동사건으로 지난번에 경성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취체규측위반으로 각각 처벌을밧고 그가운데서 대부분은 복역하엿스나 리해풍(李海豊)(二〇)박상진(朴尙鎭)(一九)량명은 불복공소하엿든바 십일일오전 열시이십분에 경성복심법원에서 척(狄)재판장 향천(香川)검사의 담임으로 개정하야 오후령시 이십오분까지 전후 두시간동안 자세한 심리가 잇섯는데 리해풍은 자긔는 교실안에서 기물을 파괴한일과 경관을 구타한일이 전연 업다고 부인하고 박상진은 아래가튼 전말을 들어 장황한 답변을 하엿다 즉 불상사가 처음에 발생된 원인은 선생한명이『카페』로 술을먹으러 다니며 가진추태를 연출하고잇다는 말을듯고 하로는 생도들끼리 교실안에서 는 가장생도들에게 훌륭한 소리를하고서 선생자기는 박게나가서 선생의 직분에어기는 불량한 행동을 하고다니니 한번 조롱해 주자하야 김모(金某)라는 생도가 그선생을보고『하게 아다마』라고 조롱하엿더니 그선생은 그사실을 드러가지고 고 아모 다른 리유도 말하지안코 생도 두명을 공공연히 퇴학처분을 시켯스므로 가튼 학우(學友)를 동정하는 우정으로 사변 급생이 결속하야 학교당국에 대하야 그퇴학처분을 당한학우두명의 복교시켜달라고 아모리탄원하여도 학교당국자는 끗끗내 드러주지 안흐므로 결국 일동이 흥분하야 일치행동을이르킨것이라고 대답하엿다 방청석에서는 두피고의 부모형제 친척들과 중앙고보 교장 현상윤(玄相允)씨와 교원 한진희(韓軫熙)씨등 이십여명이 긴장스러운 표정으로 방청하고잇섯다 오후에 계속개정하야 검사로부터 피고두명에게각징역 팔개월식의 구형이잇슨다음 김병로(金炳魯)등야(藤野)김용무(金用茂)소송(小松)변호사등 네변호인으로부터감형및 집행유예주장의 변호가 잇섯다 판결은 오는 십팔일에 언도하기로되엿다

運動競技

中央基青主催
아마拳鬪
明十二日부터開戰

新秋拳鬪界의豪華陣! 中央基督教青年會主催의 第八回全朝鮮아마튜어拳鬪大會는 明十二日부터 連三日間(每夜八時)鍾路青年會館에서 擧行할터인바 이에出場할 選手는 멀리馬山、鐵原、水原、平壤等地를爲始하야 中央의列强 朝鮮拳鬪俱樂部、東洋拳鬪會、京城拳鬪會、YMCA拳鬪部等이參戰케되여 出場人員七十餘名에達하야 盛況을豫期하고잇는바 今十一日午後四時부터 出場選手들의 計量이끗난다음 곳相對者를 抽籤決定할터이라한다

東京遠征의
崇專發程
今十一日밤에

【平壤】平壤蹴球界에서 牛耳를 掌握하고잇는 斯界의覇者 崇實專門學校蹴球軍이 日本內地에遠征하게되엿다함은 旣報와갓거니와 豫定보다 조금이르서 十一日午後十一時十五分 平壤驛出發列車로 壯途에 올낫는데 一路東京에 向하여 다음과가튼 日割로 立敎 農大 文理大 東京同志社와 O、B와對戰하고 歸途에 京都全大邱『戰爭한後』二十三日 二十五日京城에서 延專 二十六日 京醫專과 各一戰을 하기로되엿는데 平壤에서는 同蹴球團의 壯擧에對하야 커다란 期待를 가지는同時에 前途에多福을 祝福하고잇다

崇專遠征軍의멤버와 日割對戰은 다음과갓흐며 引率者朴英氏以下選手十五名이다
GK 朴相錄 (F·B) 朴炯烈 李昌植 金榮奎 (H·B) 康京瑢 尹昌善 金應麟 林鳳鎭 (F·W) 金寬守 朴淸俊 金水根 金仁赫 沈彩烈 金東奎 毛振奉
◇日割及對戰
▲十六日=立敎 ▲十七日=農大 ▲十八日=文理大 ▲十九日=東京OB ▲二十日=京都 ▲二十一日=同志社 ▲二十三日=全大邱 ▲二十五日=延專 ▲二十六日=京醫專

水球競技大會

朝鮮學生水上聯盟主催의第一回水球大會는 十日午後四時부터 城大풀에서 擧行하엿는데 朝鮮人側學校의 普成專門軍이 孤軍奮鬪하엿다

○大豫 7	4…0	3…0	0 普成
普成 3	2…2	1…3	5 大豫○
○高商 8	5…0	3…1	1 普成
普成 2	0…5	2…5	10 大豫○

慶應對關大拳鬪
姜、全南君快勝

【大阪】慶應大學對關西大學의定期對抗拳鬪戰은 七日午後七時부터 中之島公會堂에서 擧行한바 結局四點半對四點半으로 無勝負로 마치엇는데 이날 關西大學代表인 全一朋(페더級)君은 佐藤(慶應)選手를 姜泰珍(라이트級)君은 松本(慶應)選手를 모다 KO로鮮勝하야 氣勢를올리엇다

延專蹴球部員一同
평권軍에게義捐

十日밤 本社大講堂에서 열린『올림픽의밤』에入場하엿든 延禧專門學校 蹴球部員一同은 即席에서 넉넉지못한 주머니를털러 二十圓을모아 壯途에오를水上올림픽代表에게 義捐하엿다

평권俱員大邱에

『올림픽의밤』開催次로 京城에留學하든 평권淸永俱樂部員一行은 今十一日午前七時四十分 京城驛發列車로 慶北訪問地 大邱로 向하엿다

獨逸陸上競技經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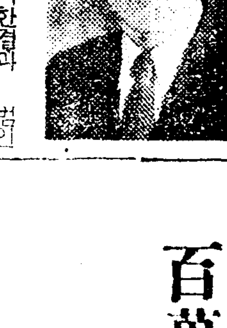
全米國陸上競技의 다음가는 地位를 차지하고잇는 全獨逸陸上競技選手權大會는 지난八月一、二兩日間 伯林에서 擧行한바 果然 各種目에 好記錄이續出하야 가위『올림픽』을 主催할 獨逸陸上界의 勃然한實力을 餘地업시 發揮하엿다 其中에도 走幅跳에서 今春來好記錄을 連發하고잇든『라이첸』이 七米七三의 獨逸新記錄을 지엇고 三段跳에는『도레구벨』이 十四米九九의 新記錄으로 十五米에肉迫하엿다

仲秋明月

귀뚤아미소리가 뜰기에서 은방울 굴리듯이 맑고 깨끗하고 하늘에는 별가루가 더욱 빗나고 은하(銀河)가 분명하게 보인다 청지모롱이 풍경(風磬)소리가 멀리들리는 음악소리가리 쟁쟁히 울리는때이며 시내ㅅ가 풀포기에는 진주(眞珠)알가튼 이슬방울이 도리도리하야지고 물가운데는 은쟁반가튼 달(月)그림자가 금색의 투광(投光)을 앗기지안는다 어느해 어느달에 달업든밤이 엿것만 가을달가리 빙심(氷心)의 정회를 날리는달이업고 가을밤 이삼추의밤을 고루비취되『한가위』달가리 달중의 달이엿다 녜사람은 일년중의 달이 오늘밤으로 제일이라(一年明月今宵多)고하야 이밤의달을 충찬하얏다 칠월백중(旣望)의 달은 적벽부(赤壁賦)를 나앗거니 이밤의이달은 엇던 조흔글을나으라느냐 (사진작야인천에서)

贓物로開店햇든
怪盜、今朝遂逮捕
並木町에變裝避身中인것을
被害額은萬數千圓
平壤出生으로 中學四年까지
다소지식도잇는전과자 女給愛人이三四名

금년정월이래 종로경찰서관내에서는 현금과귀금속등의 도난사건이 빈번히발생하야 동서사법계에서 례의 그범인을체포코저 고심하든중 팔월보름게부터 락원동(樂園洞) 효자동(孝子洞)등지에서 련속적으로 다액의귀금속도난사건이 또다시발생함으로 영정(永井)사법주임은 책임상가 어코 범인을체포하야 시민의공포심을 일소할려는결심미테 밤낮을불구하고 형사대를 총동원하야 약이십일동안 꾸준히노력한결과 십일일새벽세시경에 드듸여 그범인을체포하엿다 지난삼일오전네시경부내락원동이백팔십사번지 광산업을하는 덕곡(德谷孝)씨의 집에어떤절도가 칩입하야 약륙백여원어치의 귀금속을절취하여 갓다는 도난게를 밧은 횡전(橫田)부장은 시내각고물상점을 삿삿이 뒤지든중 십일오후 한시경에 명치정(明治町)이정목 영정(永井)고물상점에서 김영식(金永植)이라는 일본으로 파른 장물일부를 발견하고 그와 인상과 의복등을 무러 범인을 추적하다가 사일오후 여덜시경 장충단(奬忠壇)공원에 범인이 남기고 달어난자전거번호를 조사한결과 범인은 의외에도 창신동(昌信洞)사백팔십칠번지에 덕영사(德永社)라는 간판미테 포목상을 경영하고 잇는 절도전과이범 안영일(安永一)이라는 안창덕(安昌德)(二七)인것이 판명되엿다



새벽세시경 병목정(並木町)유씨근처에서 변장하야『유까다』에 게다를신고가는 그를발견하고 신태영(申泰永)고성(高城)형사외세명과 분정서 류(柳)순사등이협력하야 손쉽게 체포하엿다 그는평양부신양리(平壤府新陽里)출생으로 일즉히 평양중학 사학년을 중도퇴학한자로서 소화구년 이월신명일에 평양형무소를 나온후 서울로와서 금년이월 일밤에 부내 관철동(貫鐵洞)대동(大東)려관에 침입하야 손님김병두(金炳斗)외두명의 현금삼천백원을 훔친것을 비롯하야 부내일대를 휩쓸하며 약일만원어치의 귀금속을 절취하엿다 자백하엿다한다 그는 인천(仁川)평양 진남포(鎭南浦)등지에서도 절도를 하엿는데 절취한돈으로 지난삼월부터 전긔장소에 포목점을 버려노흔외에 각『카페』와 식당으로 드나들며 평양부호의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호유소비한터로 창신동(昌信洞)오백삼십삼번지에사는 왕관(王冠)『카페』녀급 춘자(春子)(二二)(假名)를비롯하야 동숭동(東崇洞)오백팔십번지 박정숙(朴貞淑)(二二)의 삼명을 애인으로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여오든 근래에드문 괴도이라한다 (사진은 범인)

女給等寢房의
改善을嚴命
위생상극히조치못하다고
鍾路、카페飮食店等에

종로경찰서에서는 약일개월전부터 관내에잇는『카페』『빠』식당등의 녀급침방(寢房)을 조사하여오든바 이지음 너머나 침방이 협착하고 설비가부족한것은 말할것도업고 어떤곳은 벽이허무러지고 비가새서 위생상 견딜수 업는곳이 만코대개는 좁은면적에너머나 만히인수를 수용하야 밤잣도록 손님에게 시달리여피로되는 그들을 안식식혀 건강한몸으로 직업에 종업식히에는 너머나 침방설비가 불완전하며 비위생적인것이 판명되엿슴으로 경찰에서는 곳관내에잇는『카페』『빠』식당등의 주인을 불러침방 개축과 설비개선을 명령하기로 되엿는데 머지안어 전부 개축 혹은 개선식히도록 엄중한 명령을내릴터이라한다

俄然滿都視聽總集注
朝鮮映畫
本年度秀逸
강건너마을
羅雲奎氏最近力作
不日封切 團成社

닭때문에싸음나
父子를毆打致死
醴泉郡下에생긴無智의慘劇
犯人은逃走中被逮

【大邱支局特電】십일오전두시반경 경북 례천군 지보면 도장리(醴泉郡知保面道庄里) 정탁주(鄭卓周)(二七)는 그부락의 정주진(鄭周鎭)(六○)의닭이 언제나지 기재소밧에 와서채소를 뜨더먹는것을 분개하야 말다툼끄테 전긔정탁주는『정주진과그아들 맹석(孟石)(三二)부자두사람을 뭇이 붙거지고 구타하야 직사케하고 산속으로 도망한것을 례천경찰서원이 십일 오후아홉시경 체포하야 방금엄중히 취조하는중이다

日中滿舞臺로
百萬圓을密輸
사년간을게속하다가발각
兵庫縣에서檢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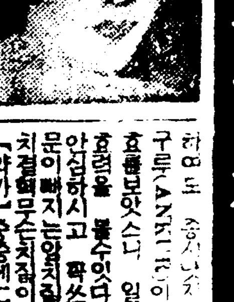
【電通神戶電話】병고현(兵庫縣)형사과에서는 일만중화상국을 무대로하야 사년간 백여만원의금괴를 밀수한사건을 취조중이든바 십일겨우 그전모가 판명되엿다 그밀수단의 수괴는 목하도주중인 대판부하 포시정(大阪府下布施町)에 본적을둔 립산신삼랑(立山信三郞)(四四)으로 그는 신호의 외국상관(外國商館)에서 일을하엿든 관게로 만주와중국지방사정을 잘알음을기회로 소화칠년일월경부터 뢰천구길(瀨川駒吉)(四○)외 여듧명에게 지금을주어 도랑크 밋테교묘히 금판(金板)을깔고 그우에 다른 잡품(雜品)을 너어 감쪽가치 감시의눈을피하야 상해에가자다공범의 등정영작(藤井榮藏)(三○)의손을거처환전상(換錢商)복대호(福大號)에서 돈으로밧구고 잇슨것으로 동변 칠월신호경찰서에서 일단이검거될때에도 립산은 교묘히 도주하야 소화팔년일월경부터는 대련(大連)을 경유하야 밀수를 계획하다가 금년일월 대판시내에 삼중상회(三重商會)를열고 금괴를경도(京都)대판의 두정거장으로부터 철도특송소하물(鐵道特送小荷物)로 꾸미어 상해에잇는 등정과 련락하야 밀수를 계속하고잇섯든것이라한다

天氣豫報
晴曇不定

昨日能登附近에잇든 颱風은東北地方을 橫斷하야 太平洋으로가버리고 小低氣壓은 天津北部와 滿松附近에잇다 高氣壓은 오-쯔크海로부터 日本海를거처 朝鮮에퍼저잇다 南朝鮮은 小雨其他는 滿洲朝鮮이 모다호리기쉬웁다 日本은東南以西는 天氣가조코 以北은 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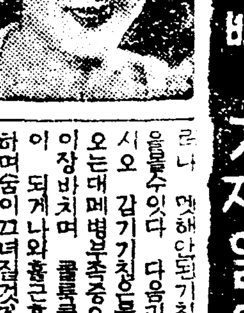
昨日 最高 二十八度五
氣溫 最低 二十一度七
今日 正午 二六、五

치질엔
엥구루가제일이요



누구나물론하고 대개치질이잇는대여러해된 치질로 수술을 면번이나하고 조약한약 상약벌벌치료를 하여도 좀처럼 안는 치질에 엥구루(ANKI)이주일분으로 대효험을보앗스니 일이년되것이 이곳 안집하시고 곳쓰시오 피나는대흉 문이빠지는양죄질 쑤시는질 치루 치결핵목등의치질이든지치료됩니다
【약가】중중에二원 경중에一원 송료선금이면무료 대금인환이면 삼십전이요분문에 느키도하고바르기도하는약
(약은)경성신성당에로주문하시오

기침·담·천식엔
엣치뻬ー가제일이오



남녀노소업시대개 기침을하는것인데 여러해된천식 해소천촉으로변변히약을쓰고변변치료를하여도안낫든해소가 신발명한엣치뻬ー이주일분으로 대효를보앗스니 그러나 멕해안된기침이어 곳효력을볼수잇다 다음과가튼분은곳쓰시오 감기기침은물론해소와담나오는대폐병부종증으로 기침과담이장바치며 출혈륵막하는데기침이 되게나와흉근흉근하며 젤젤하며숨이끄녀질것가튼대게안나와도조금식 바튼기침하는데기침은안햇도장ー닥오나오는데ー
【약가】완고용三원 중증용二원 경증一원 지방송료는대금인환이면삼십전 약은화학의이오 (약은경성신성당으로주문하시요)

부종·폐병·륵막염엔
나오뻬ー가제일이오

폐병은 몰래의 난병으로 일년에 사망자가 수십만명이되는데 종래의치료가 불철저하엿다 입때까지는 측절허부의 국만족일나고드럿스나 그래서는절대로안낫는다 살균도할필요도 잇지만은 한편으로몸도보하고 원기를도아주어야한다 그뿐더러 잡식로발병되엇다 측살균보혈강장포위제지(包圍制止)의 삼작용을일시에 하여야된다 이작용을 식히는데 종래에는여러가지 치료법이 잇섯다 제일에 약먹어서 곳치는법 잘먹는법 일광요료법 산소료법가로운요료법등 여러가지가 잇는데 약한가지로 이여러가지 작용을 하는법을 다변고심 연구한결과발명하엿다 측삼기의중병으로 고통하는 환자도이를먹기시작하야 열흘동안에대효를보앗신기한 약이다 이러한 자신이잇슴으로 안심하시고 별별약을 쓰고백방으로 치료를하여도 안나어서고통하는분은 일시라도 속히나오뻬ー를쓰시오 아래분은쓰시오 구미업고 잘체하고 기침나고담뱃고 열이나고 몸이파리하여지고 혈담뱃고 피를토하고 숨이차고원기가업고 가슴이아푸고 엽구리가절리고 갈비때도압프고 수족이찬분 부족증 폐병 륵막염 뇌점병
【약가】삼기용二十원 이기용十원 초기용五원
송료는 대금인환이면 삼십전선금이면 무료 (약은 가루약이오 열흘만 먹습니다) (약은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체증과속병엔
겡오ー가제일이오

효력최고국상유일한특등、최근에 전세계에유명한후에웨제도만히드려고세계적 만엇다한약이다 도보다 더신답니다

무병이장자요 신외무물이라니병이잇고는 전세계재산이다자기것이라하야도 소용이업고산해팔진미가눈압헤태산가티 차려잇서도먹고십지안으니 무엇보다도 빨리우장병이 나어서구미잇서음식먹고 평생의욕망이 건강한정신과건강한육체로활발스러운 남과가티활동을하고십흔것박게는 더바라는것이업스리라 입때까지조치못한일시적효력업는 졸론것이나전연히 안듯거나그런치안으면 인이백이는중독하는 약을연복하여밧으로변변치료를다ー하여도 특별한효력을못보앗스리라 그런대참신기한최고급속최고귀한 위장신약겡오ー를 발견하엿다 그효력의위대한증거는 답지하는 감사장이 증명하오니잘보시고안심하시고백방으로 치료하여도잘안되여고난하는분은최후에 겡오ー를 일각이라도빨리쓰시와 인생의최대행복인건강미를맛보시오 이약은남녀로소업시 유아간기에신효하니 가정상비약으로 두시는것이우리 위생상 건강상제일필요합니다
◇이런증세의분은쓰시오◇
◇소화불량、마성위장가다루、적괴、위괴양、구미업는대、신경쇠약、위확장、위산과다증、위하수증、구식조선말로주체、담체、냉체、식체、화식등으로순체증이든지 단시간에 듯습니다 약은가루약인대하루에세번 식후반시간후에 온수나 냉수에먹읍니다
약 갑
완고용(頑固用) 한갑 三원
중증용(重症用) 한갑 二원
경증용(輕症用) 한갑 一원
지방송료 선금이면무료 대금인환이면삼십전이가음우표삼십전짜리로보내도조습니다
(약은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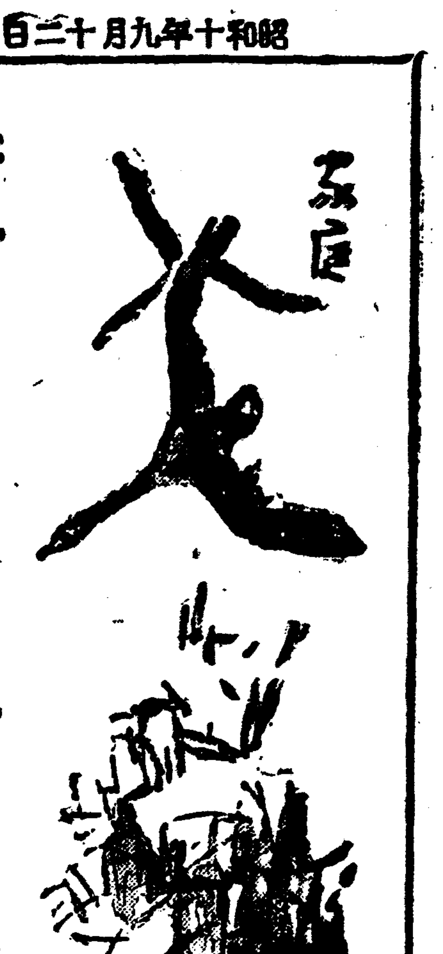
마일 무슨 약이던지 이상임쓰시와 특이성의 체(特異性體質)로 병에 안맛거나 광고와 틀니는점이 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현저한 특효가 업거든 약을갓도보내시오 청구하시는대로 하여드리겟슴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側(五) (제일큰서양로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그전신성당약국자리)
電話光化門(三三四番·振替京城四五○九番

十二日封切
新秋シーズン特選超巨篇 ノックアウト映畫的大勝利を得し人中の異才團ニのメガフォンに放る哀歡と爆笑の二名篇!!
コロムビア特作發聲漫畫
上映 顛馬消防隊
下加茂特作オールサウンド版
原作 秋篠鷺太郎 脚色 藤井滋司 監督 笠井輝二 主演 光川京子 大內弘
第二新選組
松竹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原作 フランクモルナール 脚色 齋藤良輔 監督 池田忠雄 主演 葉島利子 川崎弘子
嘆の女
老巧 毎信監督の手にて成る文藝モルナール傑作小說の映畫化!!
三回興行 第一回十二時 第二回三時三十分 第三回七時
第一第二回間入替へ無
洋畫 浪花館

九月九日부터特別公開
初秋映畫壇에보내는絶對大衆푸로
大都巢鴨超特作現代映畫 原作脚色 ... 監督 丘虹二
恨嘆의봄 (嘆きの春)
琴糸路主演映畫 中野 健治 東大寺 一郞 橘喜久子 春永 蓉子 共演
「二個의나래」「暗에위산勇壯華麗한스토리의展開」
파라마운트社超努級的特作映畫
四枚의날개 리차ー드아렌 원리암포ー엘 크라이부룩 어메리칸 부ー 共同監督
大都超特作時代映畫 待望의名篇第二篇 原作 吉岡貞明 阿部九州男 主演 監督 大伴龍三
名金女難江戶染の巻 瀬山龍之介 木下雙葉 相良傳三郞 東龍子 共演
櫻井町 本局 大正館

九月九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一時 午後二時 七時
巖窟王 (一名海王星)
十九世紀大衆文學의精華 유나이테트超特作日本版
英國劇團의 第一人者로바ー트 돈넷ー主演
◆日本發聲映畫社特作 水谷八重子主演
巨匠 의 堂堂한明朗新撰組의 壯烈한이약이
電話新撰組
朝日世界ニュース (次週特別公開) 六卷
江건너마을、陶醉夢、부라오ー醒、笑大勝利
全鮮第一 映畫殿堂 團成社 電光九七

當ル十一日特別大公開
長崎留學生
月形龍之助 森靜子 杉山昌三九 久松三津枝 田村邦男 主演
新興キネマ東京大衆超特作
國境の町
山路ふみ子復社第一回 主演 ... 特別出演
東海林太郞 ポリドール專屬歌手
立松晃、荒木眞子、岡田靜枝、有馬是馬助 主題歌 ポリドールレコード吹込
原作 岡田八千代 監督 松崎博臣 撮影 行山光一 錄音 野村穣
オールトーキー
永樂町 中央館



까닭업서 젓떼는 무자비한 어머니

애기에게는 어머니의젓이제일

젓이 흔하고 작고 빨리는게수

갓난 애기네에게 어머니의 젓보담 더 조흔것은 업스니 될수잇는데 까지는 어머니의 젓을 먹이어야 합니다 우유니 암죽이니 하여야 모다 어머니의 젓보담은 소화되기 어려운 까닭에 흔히 소화불량(消化不良)에 걸리게 됩니다 요사이 살림이 좀 넉넉한 분들은 갓난이에게 우유를 대고 자긔젓은 고만 말려 부치는 경우가 잇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한 죄악입니다 밤부득이한 경우에야 그야 할수도 업스되 그저 자긔몸이 좀 편하자고 해서는 절대로 못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젓이 부족할때는 어떠케 합니까? 우는 애기를 끼어 안고 안저 어머니의 간장이 얼마나 녹겟습니까?

산모가 결핵병을 가젓거나 비혈증이 잇거나 지방이만커나 발육이 시원치 못 하야 유선(乳腺)이 잘 발달되지못한 때는 젓이 잘 나지안습니다 그이외에도 나히가 만허가지고 처음으로 해산을 한때에도 젓이 잘 나지 안습니다 그런 관게로 안 나오는 것이야 물론 할수 업습니다。 그런때는 애초부터 단념을하시고 속히

우유나암죽을

먹이시도록하는 수밧게 업습니다。 그러나 유즙을 알핫거나 산모의 영향이 부족되야서 나는젓이 줄어드는 수도 업지 안코 또는 갓난이에게 젓을 잘못빨리어서 고만 젓이 떨리게되는수도 잇습니다。 그런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야는 미리부터 거긔대한 상식을 준비해두시는것이 조켓습니다。

×

첫재로는 산모에게 당분을 만히 먹도록 주의하서야 합니다 혹

입맛이업다고

하야 매운것 짠것 커피차가튼 것을 먹으려고 하나 그것은 안먹이는 것이 좃습니다。 둘째로는 산모 에게 국물을 만히먹도록 주의하서야 합니다。 산후의 변비증으로인하야 흔히 설사할 약을 먹이게되나 그것은 재미업는 일입니다

셋째로는 산모의 정신을 안정시키어서 흥분되지 안토록 하여야 합니다。 산모가 흥분되면 젓이 유표하게 줄어집니다。 넷재로는 만히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작구빨리서야

합니다。 안빨리기 시작하면 젓이 동으로 곤처 지고 맙니다。 하여튼 그이어 빠도 젓이맛 사지도 하고 온돌로도 하고 대양 동도 좀이놓을 홀려 커로도 해하고 마파인 빨라 공기를 마시도 업습니다。 그러면 큰모피를 미용수는 업서도 다소 나허집니다。

×

아까 것을 잘못 빨리면 젓이 줄어든다고 그러지 안켓습니까? 그러면 어떠케 빨리어야 됨니까? 첫재로 젓을

먹이는시간이

일정치안해서 젓이 흔흔들을 때도 잇고 아조박작마를때도 잇서서는 안됩니다。 또 이럭어나 저녁이나 한목만 자조 빨리어 다른 한쪽을 거의를 용울로 맨돌어도 안 됩니다 그러고 젓을 다먹이고서 아죽도 젓이 남엇거든 그것은 남겨두지 말고 다른아히에게 따도 먹여 버리십시요。 그냥 두는것보담 그러케 하는것이 도리어젓을 계속하야좃습니다

쌀

조흔쌀은어던가

살림사리 하시는분은 누구나 아라두어야할 쌀선택에대한상식입니다 밥을지여 먹어본후 쌀이조코 낫부다는것을 알기보다 먼저 조흔쌀을 골르는것이 민첩한일이라고 할것입니다 첫재 쌀낫이 균일하고 동동히 살진것이 조코

둘재 빗갈이 투명한것이조코 셋재 쌀낫의 반분은 희고 갱미 절미가 업는것이조코 넷재 끌이여드게진것이조코 다섯재 깨무러보아 고소하고 군냄새가나지안는것이 조코 여섯재 밥을지어서 찬밥때 물에마라보와 물이흐리지안한것등이조흔것입니다 그러고 쌀은 늘 찬곳에두어야합니다 두주에 너흘때 두주속을 깨끗이씰고 일광에말리어주식기전에 너허두어야합니다。

'바보'어린애를 가지신 부모님께

위대한 자비심과 열성으로 꾸준히지도하시면치료되오

세상의 가장불행한 사람중에 정신이박약한, 말하자면『바보』또는 전능한자식을둔 부모가 한목끼울것입니다 그러나 결코비관만해서는 아니될것이니 정신지도와 교육치료로서 곳칠수잇는까닭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연구한바를보면 일곱살이나된아이가 건만 비둘기 밤이 몃이되는지 아지못하며 어머니와 할머니와 두분중에 어느분이 나히만흔지를 아지못할뿐만안이라 말이뚝뚝지못하고 신체가건들건들한아희, 이와반대로눕부처처럼뚱하고 부모 형제에대한 공측감까지업는 아희도잇습니다。 만약이러한 자녀가잇슬때 몰구자이니까 도저히 완인을 만들수업다고 결정해버려서는 안됩니다 이러한아희도 치료를잘하면 완전히 곳칠수잇습니다。 지도치료자가가저야할 근본성격은대자비심과 열성이니 이것을가지고 성의를쓰지안흐면 아니됩니다 방법으로는

一、세상일을 불편하고 회차에게 친절할것

二、감정에 쫏기지말고 애정으로 편함할것

三、항상 엇던일에든지 규측을 정해노코 잘하는일에는 조흔 상을줄일

四、천추를 굿게하는 신체운동을꾸준히 식힐것

五、또는 부모가 백치병이라고 단정하엿슬때도 자세히 조사해보면 정신상 능력 결함이업고 성격상 병증세——즉불량성과 현재성(現實性)설절내고 실쿵 장내며 저마음대로 도라다니는 발광성질이 잇스며 거짓말잘하는것들은 납로성격이니까 이정돌주의하야 사회생활에 나아가기전하로밧비 지도를잘하면 쾌히 곳칠수잇습니다 엇던아희들은 부정에『그만둑어버렷스면!』하는등……정신병도 조발할수잇스나、신경쇠약、불면증、단순한 강박관념등의 병은 의외로 용이하게 원인을알수잇습니다 이원인을 잘아라내어 교육적지도치료법을 시행하면 정신이 청명해질것입니다

어린애기들위한 편식교정법

어린애기들의 먹는음식에는 아희들이 극히실허하는것도 잇고 아주조와하는것이 잇서 이른말미암아 발육긔에는 아희들의영양을 방해하며 사랑스러운 애기를 약하게 하는수도 잇습니다 이럴때 주의가깁흔 어머니되신분이 이번대적 식욕을 교정하려고 맛을변하게 만드러먹여도보고 모양을 달리해서 먹여보는등 고심하시는분도 만흐실것입니다 이것에편해서『코롬비아』대학 아동심리학교수실에서 발안되여서 미국에서 패별리 시험해본바 새로운 응용심리학을 리용하엿는데 그방법은 조죽 음식을 실허하고 조와하는 아희를 중심으로 그양친과 형제가 좌우로 좌석을잡고 안저서 그아희가 실허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아희에게는 절대로 권하지말고 맛잇다는 말을 련해가면서 먹습니다 엇더케생각하면 우스운것가트나 어떤아희는 이리할때 족음식 손을내밀며 먹어보려고합니다 이러케 별난일이라도 아희의 발육을위하야 필요한음식이면 먹도록시험해보십시요

家庭醫學

자궁발육부전

問 저는 자궁발육부전과 자궁내막염의 환자이온바 자료료법을 가르처주시요。 어떤의사에게 들으면 집세척이매우 필요하다는바 세척약과회수를 가르처주시요 그리고『리조르』를 세척약대용을 하면무방할가요 (一讀者)

答 『오비호톤』(벤싸-트) 라는 약을써보시요 이약은 아모조록 오래동안 (약일년간)쓰시고 그후에도『리레오그란도-르』라는 약을 쓰도록하시요 내막염에 대한 치료는 다음에 쓴처방약을 밤에한개식 아래에 넣으시고 아츰에 이러나서 백배의그리조-르물로 세척하야보시요

一、이히치오-르 ○、一五

카-오림 三、○

바리톤 名歌手 金文輔獨唱會

九月十三日밤七時半 本社大講堂에서

主催 朝鮮日報社學藝部

會費		
白	券	1·00
靑	券	·80
學	生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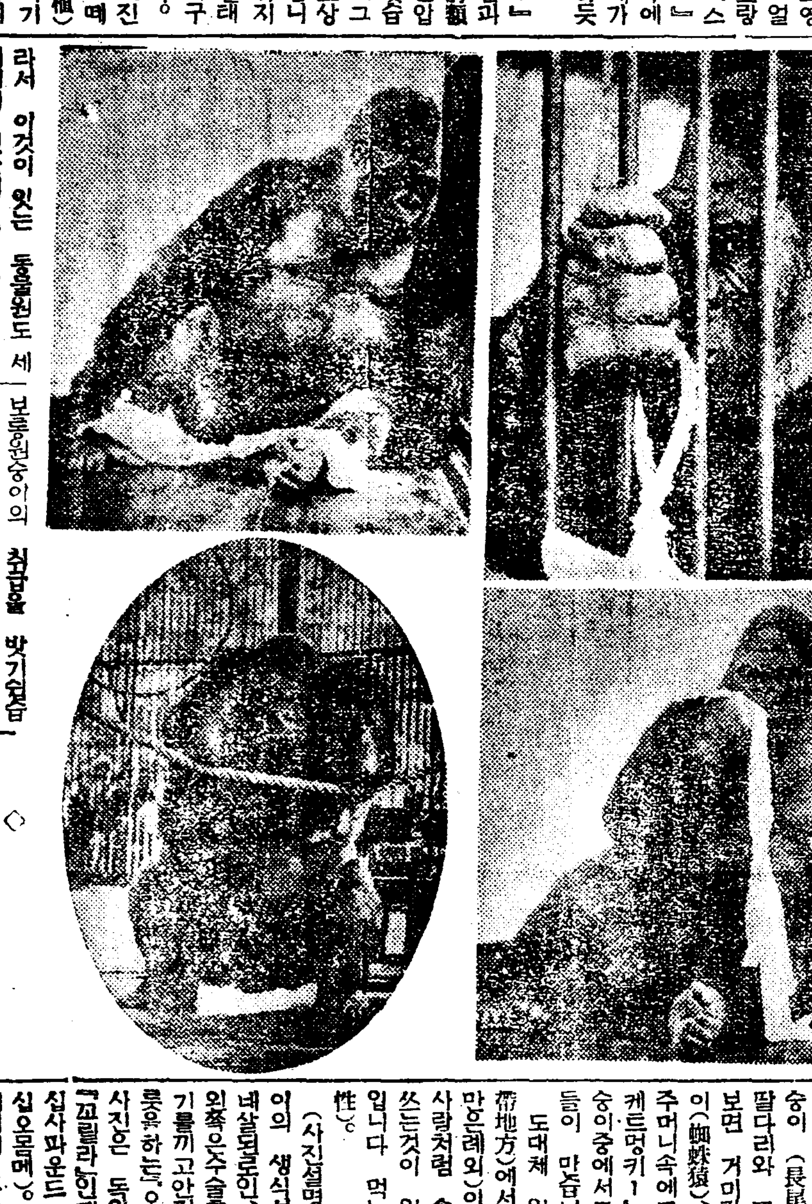
紙上動物園 (8)

『원숭이는 사람의 조상이다』 한동학자들이 이런말을 하게 되는것은 원숭이와 사람이 너무나 가차운점이 만허서 옛날 애부태고적사람은 원숭이와꼭 갓던스러라고 생각한것입니다가 럿다는니보다 원숭이가 차차차 진화해서 사람이 되엿스리라는것입니다…엇재서 그것을 아느냐? 그대답은 이좀으지면에 일일히기록할수업슨즉 그것은 다른기회에 미루기로하고 원숭이이야기로 바로드러갑시다◇ 원숭은 다르지만 원숭이종류에 속한 동물중에 제일사람과 비젓한 원숭이가 무엇이나 하면 『코릴라』와 (大猩猩)『지판지-』『오랑그』(猩猩) 『기본』

사람만 안산다면 지상의 최고동물

죄업시 령오의몸된 원숭이

『사람원숭이』이라고부르고 다른원숭이 종류는모다『개원숭이』라고합니다 먼저『코릴라』와『진판지-』를말하면 이두가지는『아푸리카』에서 나는데『꼬릴라』는몸집이무척뚱뚱하고 키도항용일곱자 여덜짜나되며『진판지-』는 그보다키가적고 온몸이 새까마키때문에 흑성이라고한것 입니다 이두가지는 몸이사람보다훨신크니만치 기운이 무섭게세여 그지방사람들은 사자보다도 더무섭게여이는 동물입니다다잡이업시 산속에 산다할뿐이지 일상생활이며 몸놀리는것이 사람과제일가찻습니다 그다음에『오랑그』와『기본』은『아세아』에서 나는 원숭이인데 오랑그는 사람만큼이나크고『기본』은 그보다도 훨신적으나『꼬릴라』『진판지에 비하야 팔이 좀길고영리한눈도 그만못 합니다만 얼마나 사람과 비젓한지 『오랑그』가 나는 『보르네에』『스마돌라』 사람들은 『오랑그』를 주생으로 알지안코『숲속에 사는사람』이라고하야 우리네가 벌거버슨 야만인종들을 대하듯합니다。 그런데『꼬릴라』와『지판지-』는 신체의 박가수조가 사람과 꼭가틀뿐만아니라 전액강(前額腔)이라하야 사람에게만 잇는압이마뼈에 구녁잇는것까지 갓습니다 이런것을보아 학자들이『그이아닌가』하고떠들게되는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혈청(血淸)까지 사람과거이 꼭가트며 석달된태아(胎兒)쯤이면 사람의래아와구별하기 곤란할 정도라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엇던의학자가『진판지-』의 갑상선(甲狀腺)을 떼어 다가 사람에게 이식(移植)을하야 백치병(白痴)을 고치기도하고 생식기『호르몬』선을떼어다 사람에게 이식하야 늙은이가 젊어지게하엿까지 잇다한니다。 『꼬릴라』는 원체 사나운 놈이라 산채로 잡기도 힘들고 [illegible] 한번도 [illegible] 와본일이업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잇는 동물원도 세계에서 몃군데업습니다 그러나『지판지-』는 비교적 기운도 적고 순해서 웬만한 동물원에는 다잇습니다만은 조선동물원에는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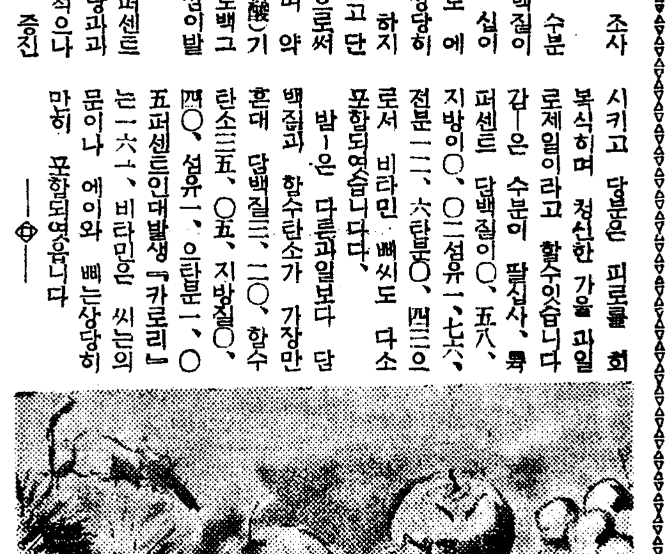
보통원숭이의 친구을 밧기쉽습니다만 압서 말한바와가티『사람원숭이』에 속한만큼 대단히 령리할뿐아니라 새벽이면 낙추에 올라안자 노래를 부르는 원숭이인데 독창보다 대개는 합창 [illegible]

◇ 그다음은 보통원숭이인데 종류도만코 생김새도 다릅니다만 세계에서 제일치운곳에서 난다는『일본원숭이』는 우리가 보통보는 얼골과 볼기짝이 빨가숭이 [illegible] 나온 불불(狒狒)이, 꼬리가 길다해서 나무에 척척 감으면서 손처럼 꼬리를잘쓰는 꼬리긴원숭이 (長尾猿)몸이 조고마하나 팔다리와 꼬리가사뭇기러 얼뜻보면 거미갓다고해서 거미원숭이(蜘蛛猿) 몸이조막만해서 호주머니속에도 너코다닐수잇는『포켓멍키-』라는원숭이……등 원숭이중에서도 특징잇는 원숭이들이 만습니다

도대체 원숭이는 열대지방(熱帶地方)에서나는동물(일본원숭이만은례외)이니 나무에잘오르고, 사람처럼 손이분명하야 손을잘쓰는것이 원숭이의 공통된습성입니다 먹는것은 식물성(植物性)。

(사진설명……맨우의것은 원숭이의 생식선을이식하야 젊어진 네살된로인、 바른쪽은 수술전 왼쪽은수술후。가운데사진은 색기를끼고안저 자애깁흔어머니노릇하는『오랑그』(猩猩)。 민아래사진은 독일백림동물원에 잇는 『꼬릴라』인데 몸무게가 오백여십사파운드 (일파운드는 일백이십오몸메)。 동물원『꼬릴라』로 세계제일가리라 합니다。 일홈은『보비-』。 표정을 좀보십시요사람과 꼭갓지안흔가——『고향의커자들은!』『나는령오(囹圄)의몸이다!』『꾀십한일!』『처량한일이다!』)

과실 한장등 라따철 영양분검사



과일만은 가을부터입니다。 가을의 과일은 일년중 제일맛잇는때입니다 이러케 가을미를 떨치는 과일들의 영양가치를 조사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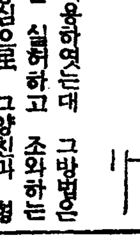
포도…포도의 성분은 수분이 팔십칠퍼센트、당백질이 조금잇고 함수탄소가 십이퍼센트인대 비타민도 에이는적고 삐、씨가 상당히 잇스니 영양과일이라 하지 안할수 업습니다 그리고 단맛은 이른바 포도당으로써 포도의 독특한당분이며 약간쓰맛은 주석산(酒石酸)기라 유긔산으로서 포도백그람의『카롤리』는 오십삼이발생합니다。

배-는 팔십삼、팔퍼센트가 수분뿐이외 포도당과과당으로서 비타민은 적으나 산미(酸味)는 식욕을 증진시키고 당분은 피로를 회복시히며 청신한 가을 과일로제일이라고 할수잇습니다

감-은 수분이 팔십사、쿡퍼센트 당백질이○、五八、지방이○、○二섬유一、七六、전분一二、六탄분○、四三으로서 비타민 삐씨도 다소 포함되엿습니다다。

밤-은 다른과일보다 담백질과 함수탄소가 가장만흔대 당백질三、二○、함수탄소三五、○五、지방질○、四○、섬유一、○탄분一、○五퍼센트인대발생『카로리』는一六十、비타민은 씨는의문이나 에이와 삐는상당히 만히 포함되엿습니다

——◇——



十一日(水曜)

◇午後六時 라듸오世界一週修學旅行 京城으로부터滿洲國(一) 金道泰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話 內鮮人의信仰生活概觀 田中德太郎

◇同七時三○分 趣味講話 蟋蟀과東洋文學 李殷相

◇同八時 피아노獨奏(레코-드)(크로이차)

◇同八時三○分 歌詞 一、春眠曲 二、乾坤歌 李月色 金綠桃

十二日(木曜)

◇同九時○分 映畵이야기 庶榮의都市 李愚興 大笒 金永根

◇午後○時五分(東)今日프로그람發表 獨唱과室內樂 獨唱 奧田良三 鈴木과르렛트

◇同二時 趣味講話 文藝에나타난名目 李軒求

◇同六時 라듸오世界一週修學旅行 京城으로부터滿洲國(二) 金道泰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仲秋名月 崔南善

◇同七時三○分 副業講話 野生藥草採取에對하야(一) 都逢涉

◇同八時 京城으로부터全國中繼 仲秋名月의저녁 京城의名月實況(邢蔚)―平壤牡丹臺下大同江畔으로부터中繼―

◇同八時二○分 特輯라듸오風物詩 八月佳俳全二景 李雲芳作 라듸오·푸레이·미-팅 演出……朴珍 効果 金照雲

第一景 場所 어떤시골 때…八月十四日 (配役) 相鉉(小地主)……李素然 崔氏(그의妻)……卜惠淑 相錫(相鉉의아우)……尹星畝 金氏(相錫의妻)……金仙草 相鎬(相鉉의아우)……金聖德 乙順(相鎬의누의동생)……徐月影 相道令(머슴)……姜石燕

第二景 場所……漢江附近 때……八月十五日밤 (配役) 慶培(詩人)……朴齊行 銀姬(音樂家)……徐月影 慶培의父(鐵物會社社長)……卜惠淑 銀姬의父(鑛主)……李素然 奉一(뱃사공)……尹星畝 奉一의妻……朴齊行 七得이(奉의아들)……金仙草 金照雲

◇同九時 戀鏡와農夫歌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農夫歌 丁元變 吳大石 金世俊 趙相鮮 金燁守 金素姬

十三日(金曜)

◇午後○時五分 平壤歌外 一、平時調 二、男唱지름 三、梅花打鈴 四、平壤歌 五、漢江水打鈴 張香蘭 細甫高載德短簫 崔壽成 笑琴 池龍九

◇同二時 音樂講座 音樂듯는法 洪蘭坡

◇同六時(東) 管絃樂 一、行進曲『華麗한都邑』아-렌作曲 二、귀여운애기…아이젠만作曲 三、學生 生活…로-린손作曲 四、勇敢한軍樂… 東京오-케스트라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乃木大將의追憶 李樂應

◇七時三○分 副業講話 野生藥草採取에對하야(二) 都逢涉

◇同八時(東) 管絃樂 一、陸王…服部正編曲 二、森林의노래…山井基淸編曲 三、프루-트協奏曲 D長調…모-차르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아 메르트(獨奏) 魚好寬 宮內省樂部오-케스트라 指揮 가에라노、코메리

◇同八時三○分 漫談三題 一、破鏡 二、烈女 三、빈대 旅行談 黃村景

◇同九時 歌曲 一、羽調頭擧 二、羽樂 三、界樂 四、界樂 五、編 金蕉紅 金美花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曆

九月十二日(木) 舊八月十四日 乙酉(大)十五日 辛卯·木·井·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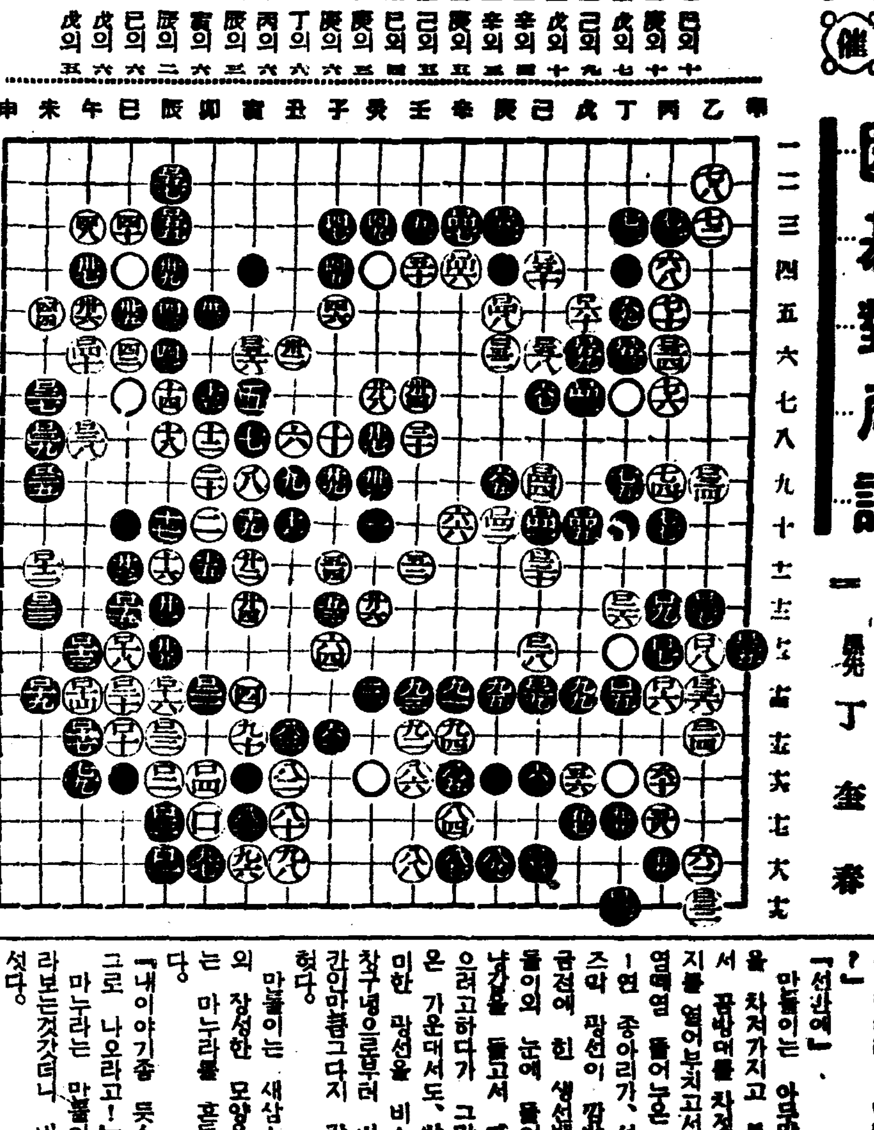
●白露八日(舊八月十一日) ▲秋分二十四日(舊八月廿七日)

本社主催 圍棋對局譜 —9—

白 閔仲植

黑先 丁奎春

[illegible]



◆蔡極文氏評 黑丁의 十四附近에서 迂回曲折로 丁의 四附近으로 連絡하니 後慮난 頓忘하엿다 黑이 抽暇를 어더 辰의 三으로 折點을 着하니 白이 寅의 六으로 斷點을 試하는지라 黑이 不應하고 辰의 二로 延立함은 利害比較를 分明히 推想한이듯 雙方大勢가 旣已分定하니 終局手段을 加意試用할지어다

世界文藝童話集

욕심쟁이와 샘쟁이 ②

佛國짠·모레아스作 崔秉和

『자네 생각은엇더가。 자네가 먼저 소원을말해보게。 가지고십흔것은 무엇이든지주신다고 말슴하시지안헛나。 자네가 무엇이든지 말하면 한평생 부자로 지낼수가잇스니깐』

그런대 샘쟁이는 자기가먼저 소원을말하는것을 듯지안헛습니다。 하여튼저사람이 자기보다 갑절을 바터가질것을 생각하면 그원통한것만하야도 죽을것이 틀림업스니깐。

그래서 두사람은 오래동안 소원을 말하지안코 잠잣코 서로 바라보기만 하엿습니다。 그러드니 나종에는 욕심쟁이가 고만 화가 치미러올나와서 성을잔득 내고 샘쟁이에게 말하얏습니다

『대관절 자네는 무엇을 기다리고잇나。 하여간 나는 자네것의 갑절을갓지안흐면 사람괴함께 마음이 풀니지안흐니깐。 자!자네부터 먼저 소원을말하게。 그 [illegible] 따리여줄려이니』

『자!가마니잇게。 소원을 말하고말고。 자네에 어더맛는것보다는 먼저 말하는것이 나흘것이닛간。 그러테든 이나 보물을 소원하면 자네는 나의갑절을 바더가지게되지。 그것이 나는 화가나는일일세。』

이러케말하고 샘쟁이는 소원을말하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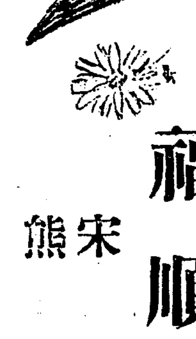
『성자님! 저의눈을 한쪽만멀게하야주십시요。 그리고 저의동무의눈은 두쪽다멀게하야 저의갑절고생을 하도록 하야주십시요』

그랫드니 약속한거와가티 성자는 즉시샘쟁이는 한눈만 욕심쟁이는 두눈을 멀게하엿습니다。

이두사람을 가엽시생각하시는 분은 들니엿습니다。 이두사람은 그야말로 악인이엿습니다 이것이 천벌이라는것입니다。(끗)

短篇小說 福順이 (11)

宋影作 熊超畵



저녁을 먹고서 만돌이는 일즉부러 코를 구럿다。 마누라도 복순이도、그리고 돌쇠도 모도 다 전보다 일즉이잠들어버렷다

자정이지나서 만돌이는 목이 말러서 잠을깨엇다。 그는 이러나서 문밧그로 나와서 샘으로 갓다。 지난봄에 자긔가 멧칠동안 광산에 가지아니할동안에파노흔 웅당샘이、맑은물을 담어 가지고 어스름달아래 빗나보엿다。 그는 드레박을 풍덩풍거가지고 하나가득히 떳다。 싸늘한 물이목구녕으로 넘어갈스록 호리터분한 정신이 점점점점 맑어지고 머리가 개벼지워는것가티그는 느끼엇다。

한두레박을 거진 다마시고서 그는 길게 트름을 햇다。 그러자 속이 후련해젓다。 그는 얼굴을 처들어 하늘을 바라보앗다。 이즈러진 달은 구름속에 가리고 [illegible] 저잇스면서 반짝거리고、그중에서 어느것은 길게 꼬리를 그리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활살가티 다러나버리는것도 보엿다。 그는、잠이 다-다러낫다。 지금 새삼스러히 방에가서 들어누어도 잠이 올리치 만무할듯 생각하고서、그는 샘가에 환돌을 깔고 안저서 곰방대를 차젓다 그러나 호주머니속에 너코서 쓰는 곰방대는 방안에 두고서 가지고 나오지아니한것을 깨닷고서、그는 다시 이러나서 방으로 돌아왓다。 컴컴하다。 어데잇는지 곰방대는 손에 잡히지 안는다。 그러자、

『이게 누구요? 무얼 찾는셈이오?』

하는 마누라의 잠깨인 음성이 들리엇다。

『안자고 잇는가? 자다가 내 방구에 잠이 깨엇는가…… [illegible] 어데잇나?』

『잇자가 누가、잇자가 알지!』

『깜짝해라! 당황 어데엇까가?』

『……』

『선관에』.

만돌이는 아무말 안코 석냥을 차저가지고 불을 그어물고서 곰방대를 차젓다。 웃간에 장지를 열어부치고서、돌쇠하고 매열매염 들어누은 복순이의 허-연 종아리가、석냥깨피에서마즈막 광선이 깜바꺼저버리기조금전에 힌 생선뱃대기처롬 만돌이의 눈에 들어왓다。 그는석냥갑을 들고서 다시 석냥을 그으려고하다가 그만두엇다。 어두운 가운대서도、바갓하늘의 회미한 광선을 비스듬이 조그만 창구녕으로부터 바더드리는 웃간이마큼그다지 캄캄하지는 안헛다。

만돌이는 새삼스럽게 복순이와 장성한 모양을 내려다보고는 마누라를 흔들어 이르키엇다。

『내이야기좀 못소-당신하니바그로 나오라고!』

마누라는 만돌이를 한참 바라보는것갓더니 비슬비슬 이러섯다。

그들은 마당으로 나려와서 멍석우에 안젓다。

『마누라! 오늘 사무소에서 해고 당햇소! 내일부터 할벌이업스니 어찌하면 조켓는가?…』

만돌이는 담배한대를 피어물고나서 한참동안 끙끙거리더니 겨우 입을 떼엿다。 마누라한테 말할 면목이업다는 눈치가엿다。

『나도 드러서 알고잇댓소。』

마누라의 대답은 너무 간단하다。

『누구가 먼저 이야기하더가?』

『저녁후에 임자는 잠들고잇는데、홍서 아즈반이 내려와다 이야기하고 갑데。』

『왜 와더라노?』

『술 한깍대기 사갓다고 왓다가 잠드럿스니 그대로 간다하고 가면서 뭇지안는이야기 하기에 아렷지……』

마누라의 말끗흔 한숨에 석겨서 호리마리해버린다。

『그뿐인가? 딴이야기는 업섯나?』

혹시 복순이 이야기를 홍서가알고 왓든것이나 아닌가?하는 의심이、만돌이의 머리속으로 검은 그림자를 떠러트리는 것이엇다。

만돌이는 마누라가 아직 모르고、홍서도 아직듯지못한모양임을 알고서 조금 안심하엿다 그러나 즉시、그의가슴속에서는 언제까지나 사실을 숨기겟는가? 일즉이 이야기해서 일을 조처해라! 하는 소래가 이러낫다。

『마누라! 압흐로 어찌하면 잘 살갓소? 뭇슨조흔 도리 업슬가?』

『조흔도리? 조흔도리?』

『그래! 조흔 도리란 말이야……』

『호! 지금 다늙어빠젓스니 내가 몸을 팔갓소! 누가 사기를 하갓소! 내가 죽던지 어씨던지 업서지고 복순이는 누구던지 데려가라하구、돌쇠녀석은 다컷스니 제대로 월본집『고쓰가이』질을 해서라도 먹고살나하면 인차 혼자몸만남으니、이러케나되면 걱정업겟지만 그러치 안코는……내사 모르갓소!』

항상 자포자긔하는 마누라는 벌서부터 세상에、염증난 소리를 내붓치엿다

『조흔도리라는거시、다시말하면 모도 죽구、업서지구、데려가구 나하나 호래비로 자식도업시 사는거란 말인가?』

『그럼둥! 그게 팔자편한일이지、지금가려 팔다리에 처자가 매달리는게 편한 팔자-신세란 말인가!』

『호! 그도 그럴듯한 말이지만……』

만돌이는 이러케 말머리를 끄내가지고서、어제저녁 준식이와 새이에 생긴사실을 차자、이야기 하기시작하엿다。

全朝鮮 … 音樂콩쿠르를 압두고서 ④

出戰도 藝術家답게 審査도 藝術家답게

피아노科審査員 金永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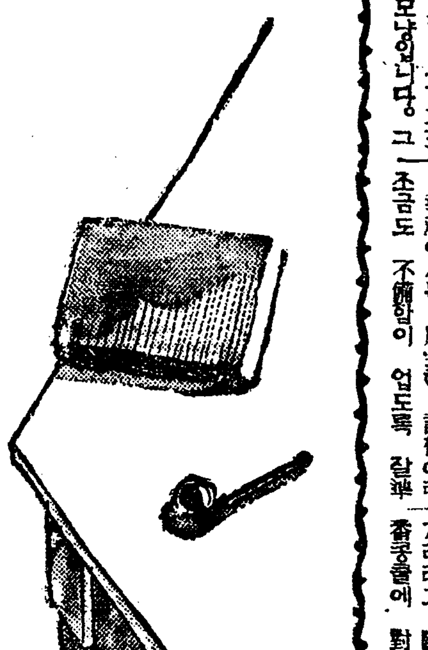
二三年來로 우리의 樂壇이 前보담은 相當한 向上을 보이고 잇스나 아즉 先進諸國에 比하야 程度로서 뒤떨어지는 것은 勿論이요 **活**氣도 멀리 미치지 못합니다. 이와 가튼 機會에 잇서서 콩쿨을 開催한다는것은 가장 意義가 기픈것으로서 이 콩쿨을 機會삼아 우리 樂壇으로서도 새로운 活氣를 띄우게 되리라고 밋습니다 目前 紙上에 發表되바로 보다면 應募者의 數가 一百三十名에 達하는 모양입니다 그 數字는 오죽 콩쿨의 盛況만을 豫約하는것이 아니라 그 影響의 무거움을 暗示하는것이 아닐까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俗談에 이른바와가티 **첫**술밥으로 배를 불릴수야 잇습니까? 第一回에 向하야 우리의 모든 企待를 채워 달라고 바란다는 것은 無理가 아닙니까? 더구나 첫 試驗의 일은 恒常 서투른 點이 만허서 그만큼 不完全할을 免치 못합니다. 今番 朝鮮日報社에서는 周到한 計劃아래 조금도 不備함이 업도록 잘準備를 해가시는 모양이나 아모래도 첫試驗임을 免치 못할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타고해서 조금도 콩쿨의 意義를 減殺시킬 것은아닙니다. 왜그러나하면 어느때가 하든지 첫試驗의 **冒**險은 쫓치 못 할것으로 오죽 그 冒險에서만 좀더 完全한것이 나올수 잇는 까닭입니다. 何如튼 樂壇에 잇는 우리들은 무엇보담도 먼저 音樂文化에 對한 朝鮮日報社의 努力을 感謝하는 同時 朝鮮日報社를 도와서 이 콩쿨을 잘 키워가야 하겟습니다. 그러케해서 同를 거듭하는동안에우리樂壇과 콩쿨은 함께 繁昌해가리라고 斷言합니다. 그런데今番 콩쿨에 對하야 나로서 바라는 바는 오죽 黃金으로 千圓이고 二千圓이고 莫大한金額을 내걸어서 널리 **人**材를 求하얏스면 하는 것입니다. 그야 實金의 多寡로만 人材가 求해질것은 아니라고 하겟지만은 아모래도 그點에 큰關係가 업지안 할뜻 합니다. 勿論朝鮮의 現實로보아서야 그엇지 容易한 일이겟습니까? 오히려 空想에 가까운한個의 希望이 아닙니까? 그러나 音樂文化의 向上을 爲하야 이쪽의일은 꼭 좀 實現하도록 努力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今年은 이미 느젓거니와 來年부터라도 朝鮮日報社와 樂壇이 同心協力해서 그 實現을 **期**必하고 십습니다. 그러고 나도 審査員의 한사람 입니다마는 審査員으로某의 까다로운것입니다. 우리審査員一同은 가장公正하고 가장冷靜키 爲하야 各部門의 協議審査를 決定하얏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람들이 以上 조그만 失敗도업기는 保障키 어렵습니다. 그러구 在來의 經驗으로 보아서 審査員에對한 不平不滿은 大槪가 그 反省이 업는 自慢心으로부터 나오는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自慢心은 自身의 藝術的으로도 有害無益한 일이니 **먼**저 各自의 反省이 잇서 주기를 바랍니다. 審査員들의 失敗를 말미암은지 不幸히도 그中의 몇사람이 모르나 그로써도 곳 自棄自棄에까지 이르는것은 조금도 업지 안습니까? 結局은 實力問題라 今年에 일허진 機會를 來年後年 來後年 언제든지 다시 붓틀수 잇습니다. 要컨대 이기는데 藝術家다웁게 지는데도 藝術家다웁게라는 標語를 가저 나는 여러分應募者에게 드리고 십고 또 審査하는데도 오죽 藝術家다웁게라는 標語를가저 **다**른審査員과 함께 나도 직히고 십습니다. 萬一 應募者나 審査員이나 조금이라도 이러한 立場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우리樂壇에 나쁜 氣風을 뿌려 큰害毒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何如튼 지금朝鮮日報社에서는 콩쿨이란 조흔 機會를 가저 우리樂壇振興의 조흔機會를 提供하고 잇는 터인니다. 그 機會를 잘把握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樂壇一同의 重大한 關心事로서 應募者여러분이나 **審**査員들이나 다함께깊刻한 注意를 要하는바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시픈말은 만흐나 이미 다른분들이어약이도 잇섯고 또장차 다른분의 말슴도 나올것이라 더장황이 陳述치 안습니다.

學藝

個人主義와 性格描寫

現代文學의 한 潮流로서

① 權重輝



親舊間에 自他의 區別이 甚하고 所有觀念이 明白하여서 一時의 物的貸借나 一擧手 一投足의 勞力에 不過하는 적은 恩惠라도 갑이갑이 잇지안이하는것을 우리朝鮮사람中에는 도리혀 긴치안케생각하는 사람이 比較的 만흔것가티 보인다。在來의 **習慣**으로는 至親間이라든지 親한터에『고맙습니다』『感謝합니다』하는말을 쓰지안는다。甚至於施與를받고 感謝를 表示함이 人格의 淺深에나 關係하는것가티 생각하는이도 엄지안타 外國人이 朝鮮人에게對하야 남의親切에 無感覺하다는 評을 나리는것은 이때문이다。어렵지안흔境遇에 『고맙다』는 感謝를 바듬을 도리혀 異常하고 딱하게녀김은 同一한境遇를 만낫슬때自己도한 伏伏致謝하여야되리라는 報答義務感으로 그런交際를 수고롭고 거북하게 **看做**한다는 안인것갓다 경우가바르고 여수가 여문것을 끄림이 오로지 그들의 懶怠性에서 由來함이라고만 본는것은 苛酷하다。

人物을 評價함에도 輪廓이호리고 矛盾이 만코 意見이 明瞭치 못하고 感情의 變化가 直線的이안인 所謂淸濁倂飮하는 濶客을 崇尙하면서 輪廓이 똑똑하고 論理가 明細하여 毫厘의 矛盾에 潔白性을가지고 趣味가 남달리 善善惡惡性을 固執하는 淸節을 異端視한다。故로 朝鮮에서는 個性이 明瞭하고 趣味가 豊富하며 觀察力이 非凡한 藝術家的素質을 가진사람보담 大膽의 **槪觀**에 能熟하고學成敗的結論에直行하며 抽象的理論에 기우러지기쉬운 政治家的 氣質을 가젓거나 或은 가진체하는 사람이 만타

이獨斷法的 規模를 숭히하며 三段論法的 性質을 輕視하는傾向은 一面으로 經濟組織이 原始形態를 未免하고 生活樣式이 家族乃至村落單位로 되여오랏도 잇고 思索와 表現方式이 外國語인 漢文에依한 關係로 觀念의 明確性이 不知不識間에 損減되 徑路도잇스나 다른便으로 民族性이라고 일카를만큼 **外部**의 影響에 물들지 안흔 무슨 固有의 原因이 잇는것이나 안일가하는 疑訝도업지안타

우리는 甲아닌것을 觀察하고 研究하는동안에 甲을解得하는수가 흔히잇다 以上의所述을 터補充함에는 個人의權利 義務가 칼로 새인것가티 規定되여잇고 思考의方式이 먹줄가티 方正한 泰西의世界를 考察함보담 더나흔것이 업슬것이다。

『데모크라씨』는現代歐洲文化의 中樞요 自由와 平等思想은『데모크라시』의 支石이라 하선平等自由槪念의 檢討로부터 個人主義歐洲의 理解에 밋처볼가한다

全人類의 平等이란 實로늘나온 思想이다 現在나 未來나人間의 平等이 成立될것갓지는안타 學校敎員은 兒童의 智力不齊를 證認하며 企業家는 **職工**의 能率不均一을 嘆息한다 命의 長短과 體力의强弱은 自然이 賦與한 不平等이오 貧富貴賤과 成敗利鈍으로 말미암은 幸不幸은 社會가나흔 不平等이다 一切人間의 平等은커녕絶對로 平等한 兩個人을 찾기도極히 어려울形便이다 이러한現實에도 不拘하고平等을 力說함은 무슨緣故일가?

사람이나면서 平等하다하는말은 現實을일음이안이오 理想을 말함이다 平等하여야할것이 안한때문에 不當然하다함이다 고르지안은것을 바로잡으라하기때문에 政治家도 소힐곳이잇고 思想家도 힘을다하야 부르짓는다고한다 그러나 理想은 可能을 **豫想**치안을수 업다 永遠히 實現不可能한 理想이 政治的理想이될수는업다 黃金時代가 再來하야도 萬人의 平等化란잇슬수업다 그런면 歐羅巴中世時代의 隸屬卽 服從을 爲主하든 封建制度傳統밋헤서 엇지平等思想이 理想됨에이르럿슬가하는 疑問이남는다

平等觀은 政治의 方便이라고 하는對答이잇다 政治는 槪觀으로 足하다 이를테면 一人의能力은 八이오 또한사람의 能力은 十이오 第三人의 能力은五라고 **計算**할수은 到底히 업다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을 爲하야는 參政權에對한 平等을 否認할이 알기쉽고 事務上輕便하다함이라 그러나 이러한 手段으로는 議會制度下의 一人一票主義를 說明할수는 잇서도 自由와 平等의 旗빨아레서 피를흘리고 뼈노흔光景은 說明할수업다

漢字의 硏究

字音의 硏究方法 (七)

洪起文

六、音註及反切의 硏究

隋唐以後에는 反切法이 생기어 音을 表示케되고 또 그 以前에라도 同音의 글자를 빌어서 音을 表示하는 수가 업지안 햇스니 나는 後者를 前者와 區分키 爲하야 音註라고 말해둔다。勿論 音註나 反切로 쓴그 글짜들도 音이 變하야 버리는 만큼 그 原音을 保障키 어렵다고 하지만은 적지 안한 參考를 이바지함에만은 틀림이 업다。

七、各地方音의 硏究

일곱재로 中國內의 字音은 반듯이 同一한 것이 아니니 廣東과 福建은 말할것도 업고 그以外에도 大相不同한 곳이 만타 이와가튼 各地方의 方音을 比較研究한다면 거기서도 어떠한 所得이 엄지 안할것이라고 밋는다。위선 『人』字는 北京音으로 『렌』이요 江浙音으로 『신』이요 山東音으로 『인』이며 또 『二』字는 北京音으로 『얼』이요 江浙音으로『니』다。이와가튼 地方의 方音을 안다면 그 古代音을 追究하는데 잇서 不少한 便宜를 어들 수 잇슬 것이다 例삼아 北京音과 松江音을 若干 對照해 보인다。松江音은 내가 일쪽이 中國잇슬 때 그地方사람에게 물어 가지고 적어 노흔 것이 되야 誤謬가 업기를 期必치 못 한다。

	北京音	松江音
東	동	동
江	쟝	장
文	웬	먼
刪	샨	새
豪	하오	오
嘯	샤오	슈
勘	칸	케
屋	우	오
物	우	워
屑	시에	시
錫	시	쇼
洽	허	야

八、各地音의 硏究

여덟재로 中國以外에도 各地의 漢字音이 또한 서로 다르니 日本 朝鮮 安南等을 들추잇다。이와 가튼 各地音을 比較研究한다면 거기서도 勿論어떠한 所得이 업지 안 할 것이라고 밋는다。위선 『魚』字는 日本音으로『ギョ』朝鮮古音으로(Ngo) 安南音으로 (Ngư)요 또 『冬』字는 日本音으로 『トウ』朝鮮音으로『동』安南音으로(Dong)이다。이와가튼 各地音을 안다면 그 古代音을 追究하는데 잇서 그역시 커다란 便宜를 어들 수 잇슬것이다。例삼아 朝鮮의 漢字音과 安南의 漢字音을 若干 對照해 보인다。

	朝鮮音	安南音
東	동	동
江	강	강
文	문	반
刪	산	산
豪	호	하오
嘯	소	키유
勘	감	캄
屋	옥	옥
物	물	밧
屑	설	시엣
錫	석	식
洽	흡	흡

그런데 上記 여덟가지의 方法은 이미 考證學派以下 歐米와日本의 學者들이 建立해 노흔 것으로 決코 나의 創見은 아니다。大槪 文獻本位의 研究를 일삼는 考證學派들로서는 各方音의 研究를 比較的 重要하게 녀기지 안코 더구나 各地音을 거의 閑却하얏든 것만은 事實이엇스나 近來에 이르러는 各方音의 研究도 相當히 進展되고 또日本音으로서 본 古代音의 研究도 進行하며 잇다。그러나 朝鮮、安南等의 音은아즉도 未開拓地로 남아 잇다。이 末開拓地를 開拓하는것으로써 그 古代音研究上 적지 안한 寄與를 行할수 잇지 안할까고 생각한다。

紀行 詩의 都 江華 (2)

湖岩

見子山의 高麗大闕터에 핀꼬온 오늘날도 오히려 宮女의 고운우숨을 聯想케하건만 當年의 帝子王孫은 어데로 갓는가 이는古都江華에 노이는손이 흔이 느끼는 懷古의一端일것이다 그러나 史的都인江華는 同時에 **詩의 都**임을 알어야하겟스니 여기저기잇는 幾多의史蹟은 그自體가 곳 웅壯한 史詩요 劇詩가 아닌가 山과 들과 밋江海의自然美를 背景으로한 江華란 舞臺우에 展開된 古今의史劇은 喜劇도 잇고 悲劇도 잇지마는 어느것이나 거의詩的이 아닌것이 업다

高麗末에 어린昌王을 廢하야 이섬에 가두엇다가 斬刑에處한것과 光海君이 그嫡弟인 八歲의永昌大君을 이 섬에보내여 蒸室에 가두고 불을달혀 蒸死케한것은 **悲劇中**에도가장慘酷한거이며 丙子胡亂城하는날에 仙源相公의 壯烈한 最後는 오늘날까지 뭇는이로 하여금毛骨을 悚然케 하는바 잇거니와 살아서 敵軍에게 恥辱을當함보담 차라리 깨끗한 죽엄이 되려고 自殺의길을 擇하게된 織弱한 婦女들의 氣節이야말로 도리어 當日有鬚男兒로 面目이업게 하는것이 아닌가 이들의눈물겨운 悲劇이 歷史上으로 몰때 반드시 우리 **民族**의 큰자랑거리는되지 못함망정 倉卒의際에 發揮된 人格的崇高한 光燄이니만치 詩라면 이런莊嚴悲壯한 詩가 또어대 잇겟든가 羽船을 짓고 綿甲을 맨드러 一種兒戲비슷한 喜劇을 演出한든半島梟雄大院君은 當年 이곳에서 佛美艦을 처서 물리치고 意氣揚揚하야 極端의 鎖國策을 行할새 일은바 斥和의石碑를 江都에도 세웟든바 오늘날 이石碑를 볼때 어느듯 歷史上 事實보담도 『유모어』에 富한 詩가리 생각킨다 어쩨든지 **古今**을 通하야 이江華에서 實演하게된 『로만틱』한 事件을 求한다면 업마든지 잇지마는 너무나 浩繁에 涉할가하야 여기서는 省略하거니와 史蹟과 自然美로 석거서 傳稱의 이淸麗한 古都는 從來 일은바 八景이니 十景이니 하는 名勝을 구태여 들출必要도 업시 고요이 살피면 路傍의草一土一石과 一草一木이 모다千古의 秘密을 속삭이고 잇슴을 **發見**하리라 이 아름다운 詩의나라에 二日동안 손이되것은 分外의淸福이여서 實情을 말하면 當地私學界의 恩人인 故柳觀先生의 銅像除幕式에 參加하기 爲하야 갓든터이라 그러나 式도 畢行하기 前에 平生 꼬림든 古蹟을 먼저 차즐새 南門터에 세운仙源相公의 殉義碑에 敬意를表하고 그마즌편 鎖國日黑碑으로려기서 大院君의 斥和碑를 보고 이로부터 다시 南쪽으로 길을 돌리어 **哲宗大**王의 潛邸를 拜觀하엿다。哲宗께서 少時에 아주零落하야 一間오막사리속에서 起臥하시며 신삼기와 돗자리짜는 일을 하시다가 一朝高貴한王位에 오르게 되심은 생각할수록 꿈과가티 아름다운 傳說이 아니면 『로만틱』한 詩話그대로임을 늣기게 된다 色眼鏡을 끼고보니까 그러지는 모르되 江華에서 일어난 史實은 모다詩的이 아님이업슴을 여기서도 보겟다 高麗朝大詩人 **李奎報**는 이詩의都에서살다가 이詩의都에서 죽은뒤 이詩의都에 뼈를 무덧고 宣廟朝大詩人 權石洲도 이詩의都에서 만이 살엇다 그럼듯한 일이어니와 金滄江으로 하여금 麗韓九大家의 一人으로推薦케한 近代文章李寧齋도 이詩의都에서 生長한 天才임을 볼때 詩의都란 이름이 決코 빈말이 아님을 알것이다。

電波를 타고 온 學藝消息

묵은 『고무·타이아』에서 新聞印刷用 『잉크』

『요하네스부르그發聯合郵信』南阿『요하네스부르그』에 사는『린커ー』『니ー르』라고하는 濠洲의 商人이 묵은『고무、타이아』로서 新聞紙用『잉크』製造하는工場을 創設하엿다

『니ー르』氏는 일직이 一九二八年 벌서『고무、타이아』로부터『잉크』를 製造하는 方法을發見하엿는것이나 그『잉크』라는것은 質이 極히 낫버서問題도 되지안헛는데 그뒤幾年의 研究를 더해서 今年에비로소 新聞紙用『잉크』로서 使用할수잇는 程度의『잉크』를精製하는데 成功하엿다고한다。

그方法을 말하면 우선『타이아』를 幅半吋쯤의 細片으로 끈코 이『다이아』의 細片을 强力한磁石의우를 通過식히면『타이아』中幾分이라도 金屬이라고 할수잇는것을 包含한것은 全部이磁石에 吸着되고 남은것은 金屬을 包含하지아니한『고무』갑뿐이라고한다。

다음에는 이『고무』갑을 約攝氏三百度의 高度의 熔鑛爐에 너어서 溶解식혀서 어든『고무』液體는 色과濃度에따라 여러種類로 分類되는데 最上質의것을 곱 縮해가지고印刷用『잉크』로서 使用할수잇는 程度의流動性이 잇는것으로만든다고 한다。

最後에 化學藥品으로 着色해서 아주정말 新聞紙用『잉크』가되는것이데 現在에는 이러케해서만든『잉크』가 濠洲及『뉴ー지ー란드』에서 五十의日刊新聞에 使用된다고한다。

新刊紹介

▲時兆 九月號 京城府東大門外淸凉里 時兆社發行 振替京城五七四三番 定價十錢

▲聖書朝鮮 第七十九號 京城府外龍江面孔德里活人洞一三〇ノ三 聖書朝鮮社發行 振替京城一六五九四番 定價十五錢

▲宗敎時報 九月號 京城府鐘路二丁目九一 朝鮮耶穌敎長老會宗敎敎育部發行 定價五錢

▲新興佛敎新聞 第一八二號 東京市豊島區雜司谷町一ノ六〇 佛旗社發行 振替東京五三七〇一番 定價五錢

▲朝鮮商工獎勵館報 第二十號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三五 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內 朝鮮商品調査硏究會發行 定價十錢

▲消費組合新聞 第八十二號 東京市城東區大島町二ノ三一 日本消費組合聯盟發行 振替東京五二六五九番 定價本號에限하야 二錢

▲東京朝鮮民報 第十七號 東京市芝區濱松町四ノ二 東京朝鮮民報社發行 振替東京四六一二〇番 定價五錢

▲鮮滿고무 八月號 京城府吉野町一丁目一二七 鮮滿고무新報社發行 定價三十錢

▲專賣の朝鮮 九月號 朝鮮總督府專賣局內 朝鮮專賣協會發行 振替京城一三六六三番 定價三十錢

黑風 【126】

韓龍雲 作 金熊超 畵

해후(邂逅) 11

『사랑하는 남자가 잇다』

홍경은 조치안한 기색으로혼저말 비슷하게 하얏다

『……』

『그래 사랑하는 남자가 누구요?』

『그것까지 아실것은 업겟지요』

하는 창순은 내선거롭이라조금도 굽히고십흔 생각이 엄섯다

『알것이 업다니오 연적(戀敵)은 부모의 원수보다도 더한것입니다 서양사람은 생명을 내기하야 연적과 결투를 한답니다 나는 무엇으로든지 연적을 처치하지아니하면 아니될것입니다 나는 창순씨를 사랑하기위하야 그만것을 처치할만한 자신이 잇는사람이오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슴하야 주시오』

섬낸 황소처럼 씨근거리면서 하는 홍경의말은 지나치게 우악스러웟다

『저의 사랑하는 남자가 선생님의 연적은 아닙니다 저의 사랑하는 남자는 오직 하나이오 틀림업는 까닭입니다 저를 사랑하는것은 선생님의 자유이겟지만 선생님의 사랑을 바들수가 업는것은 저의 사정이 아닙니까 처치한다는 말슴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슴인지 모르지마는 그사람의사정을 모르고서 한편의 자신만을 가지신다는것은 조금 이른게책(早計)이 아닐까요』

『나는 돈이잇고 권력이 잇슴니다 창순씨를 사랑하기 위하야는 연적을 처치하기 위하야는 모든것을 희생할수가 잇슴니다 돈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살수도 잇고 권력으로는 사람의 자유를 빼앗을 수도 잇는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사람이라는것은 시대를 마추어살지 아니하면 행복을 어들수가 업는것입니다』

『어리석은 동물도 다보겟다』

창순은 속으로 하면서 무거웁게 입을 열엇다

『사랑은 상품(商品)이 아니므로 돈을주고 사는것은 안입니다 사랑은 계급(階級)이 아니므로 권력으로 빼앗을수는 업는것입니다 돈이라는것은 황금의 종노릇하는 사람에게만 힘이 잇는것이오 권력이라는것은 비겁(卑怯)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잇는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저의 사랑하는 남자는 황금의 노예나 비겁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사람은 의협하고 용감하야서 황금이나 권력보다 의리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돈과 권력을 가지면 천하의 녀자를 마음대로 사랑하실줄로 아시는 모양이나 그것은 너무도 녀자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돈이잇고 권력이잇지마는 녀자들은 개성(個性)이잇고 지조가잇습니다』

하는 창순의 얼골에는 피의 조수가 떠올낫다

『아! 창순씨는 현실(現實)을 초월(超越)한 고상한 인격입니다 나는 이세상에서 돈의로 생명을 삼고 권력으로 명예를 삼는 비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현실을 초월한 창순씨로도 병을 고치는데는 고상한 리론(理論)으로 고치지못하고 비루한 돈으로 고치게 되얏습니다 그것만은깨끗한 옥(玉)에 한점의 티가아닐까 합니다 그러한 의협하고용감하야서 돈과 권력가튼것을비루하게 여기는고결한 남자를 사랑하는 창순씨는본래 돈과 권력을 조아하는 나로서는 사랑할만한상대자(相對者)가아닙니다 나가튼 비루한 사람의 돈으로 깨끗한 창순씨의 병을 구원한것은 창순씨에게 모욕을 준것입니다 나로서 그돈을 밧지아니하면 창순씨에게 영원한 치욕(恥辱)이 될것이죠 나는 창순씨의 고결한 인격을 보존하기 위하야 시각을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돈을 바다야 되겟사외다 그돈의 총액은 일천오백여원인데 명세서(明細書)는 이러 하외다』

하고 포케트에서 그간 비용의 명세서를 내어서 창순의 압헤 내놋는다

家庭醫學

압흔것으로 自己가 胃腸病症을 診斷

急性胃가다루나 胃酸過多症은 명치가 압흐고 胃潰瘍의 特徵은 食後에압흐고 胃癌은 그러케 甚히압흐지는안타。

胃腸病은 日本人에特히만코그死亡率은다른病의 數倍에達하는바 自己에게일어나는容態로 大槪이것은무슨病일가 ── 하는짐작이날만한知識이잇스면빨니適當한治療를해야危險한것도自然히防止할수잇게되다그런데胃腸病은大槪痛症이나오고그모양이病에따라서各各틀니는데가잇다

명치는胃가잇는部分임으로그곳이압흐면

大槪胃가압흔

것이라生覺하여도틀림업습니다나間或心臟病과肋膜炎等이잇슬때에도 명치가압흠으로病名을알려면다른症狀도考慮하지안흐면아니된다

그럼으로急性胃가다르는境遇는명치가압흔外에大槪는嘔逆이나오고그吐한것에는膽汁이석겨잇는것도多少의血液이석겨나오는것도잇다 그痛症이下腹部로내려가고곳甚히설사가난것은急性腸가다루를일으킨것으로雙方이다慢性이되면그리케痛症은업스나局部를 눌른즉그近方一帶는 으리하게 압흐다이런痛症은 도常習便秘時에도늣긴다 그러고空腹時에 명치가압흔것은大槪胃酸過多症으로 되는것이다 이것은胃液의 分泌이過多함으로되는病으로서 痛症外에도

아조신트림

이나오고 가슴이쓰리게된다 胃病中에도胃癌은 大部分不治病이라말하나 胃癌의原因의 一로헤이고잇는 胃潰瘍이라한것도곰직히낫지안흔병으로서 그痛症은食後直時부터 二時間쯤사이에일어나는것이特色이다 痛症의 程度도쑥쑥쑤시는것부터 파내는것가튼것、물로뜨는것가튼 痛症에입으기까지여러가지로서、場所도명치部뿐만이아니고、등뒤미까지쫏개내는것가튼 痛症이 나는일이잇다。더욱胃癌이 되즉痛症을늣기드라도 그러케激烈하지안흔것이通例이다。

또食後에膨腹感을 늣기고胃가무거운듯하게 압흔胃病은 嘔吐를잘한다。胃擴張、胃下垂도 食後에 또가튼容態를 나려내고잇스나 胃擴張은 胃弱보다도 一般에게 容態가甚하고 胃下垂에는·嘔逆이 나지안는다。이런胃腸病의 治療로서는 從來例컨대 胃酸過多症에는 重曹와가튼 알카리劑를 주워서 酸을中和하고、胃가다루로 설사하는분에는 收斂劑를주워서 自然恢復되기를 가다리고 便秘에는下劑를쓰는등

大部分科學製劑

에依한對症療法의範圍를 안나오는것뿐으로、病原에서 胃腸病을 恢復식히려하는것은 若干困難한것이엇다。

그런대『錠劑와가모도』라하는活性酵ー케菌劑는 胃腸의弱하여진細胞에活力을주어서 損傷된部分을再生식히고그機能을 健全케하는 作用이잇는酵素와食慾素라고하는이찬란 비타민等을豊富히 含有한藥劑인만큼 胃腸病의治療에 新使命을齎來할것으로推獎되고잇다 例컨대胃酸過多症이잇는분에 이것을먹으면 胃液의分泌가 調整되야서過多한酸이正常的으로 恢復하게된다。또胃擴과胃擴張이면 胃筋의弛緩이恢復되고 胃가다루는消化液의 分泌를促進함으로 消化가充分히되고 설사도便秘도自然히恢復하여진다。

幼兒의消化不良

大槪서서히하게도잇다 … 에는 抵抗力이 弱한 幼兒는 … 特히 胃腸의 機能이 弱하여지는 … 面飮食物이 腐敗하고 … 이 第一만흡니다 그럼으로 幼兒는 … 것이 必要한바、『錠劑와가모도』中에는 胃腸의 … 食物의腐敗醱酵를 막는 … 여러가지成分이 含有되야잇슴으로 … 不良의 豫防治療에 가장 … 이다。

사람의 體力은 엇더케 하야 되는가

疲勞의 防止와 病을 고치는 原理

筋骼骨と骼骨

(A) 屈筋 (二頭膊筋)
(B) 伸筋 (三頭膊筋)

우리人間의 筋肉과 諸臟器에 에네르기ー를주워서、일과野球、라구비ー、씨름等運動勤務의힘을내게하고 구힘을맨들어내는것은 무엇인가? 말할것도업시 日常攝取하는食物에서되다。

食物中에는여러분도 아시는바와가치、脂肪、蛋白質、含水炭素、無機質、비타민等 여러가지의 **榮養**素가包含되야잇스나 그中에서 所謂『힘』卽 에네루기ー源泉인것은 主로 含水炭素다。

이食物中의含水炭素는몬저밥등에서흡과가튼狀態로消化한즉그다음 腸으로옴겨가서葡萄糖으로 變하야그가血液에依하야 肝臟에 보내여구리고겐이되야貯藏된다。貯藏되구리고겐은 必要에應하야 血液에석겨서 筋肉에 送付되야 다시 葡萄糖이되고 거긔서肺臟으로 보내서酸素와化合하는바그狀態는 딱모다ー、엔진의가소링이 動力을 맨들어냄으로燃燒함과同樣으로이에依하야서 에네루기가 發生한다。더욱 **膵臟**에서 온는인수린이라고하는內分泌分은 이糖分의에네루기化에參與하는貴重한것이다。

이러한理由로身體를甚히쓰는勞働者와 스포ー츠맨의 體內에는含水素水가 急激히消費되나、但只肉體의 勤務에限할뿐아니라頭腦도 有名한마이야博士의 實驗에依하면 使用할때는 休養時의二倍以上의葡萄糖이 消耗한다는것이다。

그런때身體의 에네루기ー를發生식힘에는 다시도하나貴重한榮養素가잇다。 그는비타민B로서 이攝取가不足하여진즉 에네루기ー로化합하한含水炭素가 充分히消耗化되지만 또脚氣와結核等의病에도 걸이기쉬운것이다。

日本人은 主食이쌀밥임으로體力의源泉인 含水炭素의 攝取에는 不足하지안흐나 그것을먹으려면 必要한비타민B의 攝取가잡곳하면 不足하기쉬움으로勤勞時의 **精力**이계속되지못하고平素라도疲勞하야죽든지 스포ー츠할時는 記錄이조치못할뿐안이라 過勞가싸이고 싸이여서 病이나는 運動選手가만흔듯하다。그리하야 以上과가튼 害毒을 防止하고 비타민B의缺乏도補給하는意味로『錠劑와가모도』의 服用은 가장 推獎되고잇다

이것은 비타민B의 含有量이生物中第一은 豊富한 活性헤ー케菌으로서製造하고 더구나더욱이 活性헤ー케菌特有의『구리고겐』을 비롯하야 膵臟에서 分泌하는인수링과同樣의作用이잇는 호르몬性物質、脂肪의蛋白質、無機質비타민等의諸榮養素及十數種의活性酵素가網羅되야서 體內에 綜合的으로代用하야榮養을보급하고血液을 新生케하며、全身 **組織**細胞를旺盛活潑케하야서 機能을强化함으로單只에네르ー기ー增進疲勞防止에有効할뿐안이라、結核、胃腸病脚氣貧血等의慢性衰弱者가쓰는境遇는 病을스스로잘고치는힘을充實케하야서、速히恢復의길을올를수가잇다

의『錠劑와가모도』(錠劑わかもと)는 東京芝公園大門內『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로부터 卅五日分一圓六十錢、八十三日分五圓○五錢、一日數錢으로될 廉價로 發賣하고잇스나、近來 그聲價를利用하야서、效果에疑心나는 類似品을 提供하는 藥店도잇스니注意하오

배가끌코·설사한 慢性腸가타루가

小生、今年부터某社에勤務하게되얏습니다。

勤務한다고하드라도 勞働임으로 早朝부터 저녁까지繼續的으로 激烈한勞働을한 關係로 입에熱氣이안되고하야서 身體는솜과가티 疲勞하야서 배꿉는날어지 暴食을하기때문에어느새 胃腸을 傷하고말엇습니다

그後로는 설사만하고서 밥때가되야도 배가꾹꾹끌코배가빈것가틈으로 조금도먹지못하고 苦痛을 當하고잇섯슴으로 社에는 쉬고잇섯습니다。

·그러하야 友人이 元氣잇게 일하고잇는것을보고 부러워젓습니다。(中略)

깁히깁히 生覺하고잇는次에 그날社의 한友人이 問病하러와서 여러가지말을 한는끄테 『錠劑와가모도』를 服用하여보면 엇더할가 말하엿습니다。(中略) 빨이가서、먹어보왓더니 그동안설사도낫고 식욕이낫습니다。

그後 身體도살이올느고배갈는것도 근치고 지금은 아조 元氣잇게 본신체가되얏습니다 더욱今後으로錠劑와가모도를恒常備藥으로서 每日服用할려고生覺합니다。

(長崎) 川岸日昭

咸興平野의 今年農作
數十年來初有大豊
累年굼주리든農民들의雀躍
三割乃至四割增收豫想

【咸興】함흥평야의 금년도 농작개황을 조사하여보면 전작、도작할것업시 대풍작을 일우어 대개삼할내지 사할의 증수를예상하고잇는 형편으로 농민들의 말을드르면 실로수십년래의 처음보는 대풍이라고까지말하며일부에는 야도충(夜盜虫)발생도잇스나 거이수확과가 되엿슴으로 별로 념려할것이 업다고하는데 수년간 천재의 희롱밧고 모진 희롱에 빠지여 잇든농민들은다소간 주름살을 펴게되리라고깁버하고잇다

詐欺犯이 首位
總數三百卄三件
半年間通川의犯罪相

【通川】광명이 만흔곳에 음영이만흔것과 맛찬가지로 경찰이 밟을수록 느러가는것은 범죄현상이다 이제통천서 관내에서지난일월부터 륙월말일까지의 범죄건수를 조사하야보면 총건수가 삼백이십삼건중 검거한 인원수는 이백륙십륙인바 그중 제일위를 점령한것은 사긔와횡령이라고하며 범죄의 종별은다음과갓다고한다

詐欺九三件 橫領七一件 窃盜五九件 傷害二一件 賭博一四件 治安維持一件 其他六四件

義城農業補習校
位置爭奪戰展開
七個面代表陳情員派遣

【安溪】경북의성군에는 약십오만주민을가진 지방으로서 아즉것 중등교육긔관은 단한개소도 실현되지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일반식자와 유지측으로는 이래백방으로 활동하여오든중 머지안흔시일에 농업보습교가 정식인가되리라는데 소요긔금이만여원중 약일만오천원가량은 민간측의부담으로 내정되여 군내 각면에 배정되엿다는 소식을접하자 지난오일오후세시경에 동군서부칠개면(安溪、多仁、丹北、丹密、比安、鵝川、新北) 대표수십여명이 안계에집합하여 군내 주민의 현세와 지리적정세며 련접지인 각군의실정을 렬거도의한후 동교의 후보지인 읍보다 현재의 안계(安溪)가 천여(天與)의 후보지이란것을 력설한후 다음과가튼 진정위원을 선거하여 지난칠일에 요로당국을 력방진정하엿는데 일반은 동문제의 귀착을 매우 주목중이라고한다

陳情委員—權炳斗 朴寅煥

…래동안 병상에서 신음하게되자로 모든정성을다하야 치료에힘써왓스나 병세는점점 깁허갈뿐으로 작금에는 거의절망상태에 잇슴을본 그는 세상을 비관하고 전긔와가티 자살한것으로 판명되엿다한다

將棋大會開催
本報支局後援

【原州】원주구락부회에서는 당지조선일보지국 후원으로 음팔월추석을 긔하야 장긔대회를개최한다는바 장소는당지공회당(公會堂)이고 회비는 매인 오십전식이며 시일은음팔월십륙일이라는바 회일을 압두고 발서선수들의시합이만하서 주최측으로서는 당일의성황을 예긔한다고한다

半年동안搜索튼
橫領書記自首

【大邱】달성군논공면(達城郡論工面)면서기윤경도(尹慶道)(二七)는 작년에 면사무소의 공금 륙백오십원을 횡령소비하고 그 흔적을 감추엇슴으로 대구경찰서에서는 범인을 체포코저 각 방면으로 수사하든중 지난구일에 돌연히 대구경찰서에 자수하엿다고한다

白晝에婦女를襲擊
金釵를强逃奪走
海州上町附近에서

【海州】백주에 통행하든 부녀를 습격하야 『금비녀』를 강탈도주한 대담무적한 강도사건이 지난팔일 오후다섯시경 해주읍 상정(海州邑上町) 조동선(趙東善)씨의 어머니 김일선(金一善)(五一)(以上全部假名)이란 부인이 시장에서 식료품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도중 서선합동전긔회사 해주지점(西鮮合同電氣會社海州支店)부근을 지날때 검은 양복입은 이십세가량의 청년한명이 나타나 길을 뭇는척하다가 머리에 꼬진 『금비녀』(시가오십원)를 강탈도주하엿는데 이급보를 접한 소관 해주서(海州署)에서는 안연 긴장하야 범인을 체포코저 대활동중이라 한다

容疑者三名檢擧
鑛夫慘殺事件

【泰川】긔보=지난、륙일밤 태천군 달마리령에서 광부선우운(鮮于雲)을 참살한사건에 대하야 태천서에서는 비상선을 느리고 범인을엄중수사하든중지난 팔일 아침에는 시체의 두개골이 분쇄되엿슬뿐 안이라 두부 이외에는 상흔이 업는것을보아 자동차의 치인것이나 안인가하야 그시체를 발견하엿다는 태천군 태천면 동부동(東部洞)김병연(金炳淵)의 소유트럭을 운전하는동면동동 리성실(李成實)을 인치하고 엄중취조하는동시 동승하엿든 동면북부동(北部洞)전우왕(全于汪)과 창성군 청산면룡흥동(昌城郡靑山面龍興洞)김씨(金氏)를 참고인으로 인치취조중이라한다

土兵團의行悖로
移住同胞續續避難
十五道溝와十三道溝等地에서
長白縣同胞戰戰兢兢

【咸興】십오도구오지(十五道溝奧地)에 잠거하고 잇는 련합토병단의 일미 점산호(占山好)의부하 이십여명은 팔일 밤 동구세곡덕리(細谷德里)에 출현하여 동지이주동포들에게 대하여 먼저 요구중이든 식량급아편의 제공을 강요하여 가지행패한 행동을 감행함으로 동지 이주동포전부가 그잔인한 폭행에 견디지못하여 강안(江岸)지방에 피난하여갓다 그리고 팔도구대교자(八道溝大橋子)에 이동하여온 상희국(常喜局)의 일대 수십여명은 팔일 정오십삼도구 중산리(十三道溝中山里) 이주동포구장인 리주혁(李柱赫)에게 대하야 칠월이십일까지 현대양 삼천원과 아편삼백 『몬메』를 동민들에게서 모아제공하라 만일불응하면 전동을 소각하여버리겟다고 위협하고 돌아갓는데 동민들은 도저히 그와가튼 대금을구득할수업슴으로 호입을 념려하여 극도의공포중에서 대동요를 일의키고잇다 구일오전구시경 토병 점산호(占山好)의명의로 십삼도구도천리(十三道溝揭泉里)조선인 구장에게대하야백미 약간 계(鷄)다수를 제공하라고 협박하여왓스며 십삼도구(十三道溝)로부터 하류를향하야이동하고 잇던 진단(陣團)의 일대칠십여명은 동구사두방자(四道房子)로부터 이동한 천흥(天興)의 일대칠십여명과 대서동구도천리(揭泉里)로부터 이동한 만순(萬順)의 일대삼십여명과 합체하여 총세이백여명의 토병단이목하 팔도구대정자(八道溝大頂子)부근에 집결하고 모게획을 획책하는 중이라는데 주민들은 또 습래할것을 예측하고 자자급급한공포속에싸여잇다한다

夫病을悲觀自殺【山淸】

방년이십칠세의 젊은청춘으로남편의병을 걱정하든 남어지 드듸여 강물에몸을던저 자살한부녀가잇다 경남산청군생초면어서리(生草面於西里)경호강물속에서 한녀자의 시체를발견 하엿다는 급보가 지난삼일 오후세시경에 소관주재소에 도달하엿다 이급보를접한 경관대는 즉시의사 선중우씨를 대동하고 현장에급행하야 응급수당을 가하

本報素砂支局主催
讀者慰安觀劇의밤
振興館開館同時三日間

【仁川】경성부 시구확장과 인천부시구확장으로 경인간거리도점점접근되여오는 현상으로 과연 연선각역전의 문화시설은 놀날만한 현상이다 더욱 소사(素砂)역은 경인선중에 가장유수한곳으로 특히 극장의 시설이업서 일반이 유감으로여이든바 인천최병희(崔秉熙)씨의 특지로 일만오천원의 경비로 동역전에 진흥관(振興館)이란 상

平鐵의列車事故
八月中에總計六十九件으로
一日平均이二件强

【平壤】평철관내에서 발생한팔월중의 렬차 운전사고는

▲列車妨害三 ▲線路障碍二五 ▲機關車故障一 ▲客貨車故障一 ▲死傷一四 ▲列車遲延一八 ▲列車停止六 ▲車輪火災一

등 합계륙십구건으로 전월에비하여 십사건 작년동월에 비하여 십이건이 각기 증가햇다 이증가의 중요한것은 사상다섯건 렬차지연아홉건이 증가한때문이며 매일 평균 두건이상의 사고를 본세음이라 한다

錦江本流改修
近近實地調査

【江景】군산장항(群山長項)간의 금강철교가설로 충남강경의 수운상 일대타격을 밧게됨으로 금강본류의개수를 촉진하야 강경에하등영향이업도록하려고 지난륙월에 이만읍민을 총망라하야 금강회를 조직하고 당국에 맹렬히 운동한다함은 긔보한바잇거니와 지난일일전판중원 석본량웅의원(石本良雄議員)이 위원대표로 총독부당국에 진정운동하엿든바 토목국에서 근근기사를 출장케하야 실지조사를하기로하엿다한다

全朝鮮水上競技
十四日로期日迫頭
南北에서申請逐至

【平壤】관서체육회(關西體育會)주최 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 오는십사일(토요일)정오부터 부내 기림리(箕林里)공설풀에서 개최하는 제사회전조선수상경기대회는 신청긔일이 십이일 오후로 박두함을 따라 평양의 맹장들은 물론 남으로 경성(京城)、인천(仁川)、원산(元山)、개성(開城)、해주(海州)、북으로 신의주(新義州)、선천(宣川)、안주(安州)、진남포(鎭南浦)등지에서 신청서가 답지하여 벌서 예상이상 다수에 달해 공전의 대성황을 예기하고 잇는바 참가 지망자는 속속히 제출하기를 바란다고한다

魔의南大川築堤
自力延長認可願
北靑郡竹田里民勇斷

【咸興】북청군 덕성면 죽전리(北靑郡德城面竹田里)는 매년남대천(南大川)의 홍수로인하야 수백정보의 전답이 혹심한 피해를 밧고 잇슴으로 지난 소화칠년도에 리민들이서로 얻은 돈을 수합하여 칠천사백원과 다대한로력으로 삼백오십메돌의 제방축제공사로 완성하엿스나 아직도 다소 큰홍수만나면 의연 피해를 면치 못할 형편임으로 다시 사백오십메돌을 연장축제하겟스니 인가하여달라고 리민련서로 함남도지사에게 진정하엿다는데 이러케 자력으로 제방을 수축하는 촌락은 근래에 보기드물다고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

夫病을悲觀自殺【山淸】

鑛石을賣却橫領
被害者側告訴를提起

【洪城】홍성군 광천면 담산리(廣川面淡山里)에거주하는 유완식(兪完植)과 동면매현리(梅峴里) 리성로(李聖魯)는 동군귀항면신곡리(龜項面新谷里) 김배영(金配永)(假名=(?))광천면당산리(廣川面淡山里)김현규(金鉉奎)(假名=(?))두사람과가티 작년십일이십구일 일부계약으로 동군광천면당산리 금은광륙록 제팔륙팔삼호 당방유차랑(當房有次郞)이란 사람의 소유인 광산에 분광업을 경영하여오든바 동광에서 채취한광석 이백십팔가마니를 전부 광주대리되는 김모에게 일시예치하엿든바 이것을 긔화로하여 지난 십이월십팔일에 전긔광석전부와 기외분광업자가 채취한광석까지 합계삼백십일가마니를 대전 매광소(大田買鑛所)에 송치하여 광석대금을 사괴횡령하고 이리핑계저리핑계 하다가 전긔유완식측에 통지하기를 광석대금 사백사십이원삼십삼전이라는 대금을차저가라함으로 영수를 거절하고 즉시대전매광소 장부 등을 조사한결과 삼천원이라는 돈을 횡령하엿다는 사실로 인하여 지난오일에 고소를제긔하엿다한다

出監十一日만에
金組를또襲擊
前科二犯의怪漢

【伊川】강원도이천군 지석금융조합(支石金融組合)리사 리희재(李熙載)씨 사택에 지난팔일오전한시경에 복면한 괴한이 드러와서 자고잇든 리리사를 깨우면서 자긔는 돈을달라고드러온 사람으로서 절대로 인명을 해하라고 하지안하니 돈을내라고함으로 마침집에는 돈이업다고하니 괴한은 그러면 금융조합의 금고에잇는 현금을내라고 리씨를 끌고 조합사무소로나가서사무실로 드러가라고하엿스나 맛침밤중이라 문이걸려잇슴으로 못을뽑고드러가라고하는것을 리씨가그이웃집에잇는 조합장에게로달려가서 주재소에 급보하야 즉시경관이달려와서 범인을 체포하엿는데 범인은 충청남도홍성생인 정태호(鄭台鎬)로서 전과이범의괴한인바 징역이년을 복역하고 출감한지 열하로밧게 아니되는데 현우소인 황해도수안으로 도라가든도중 그와가티 범행한것이라고한다

平壤에도자는病
寺洞에 一名發生

【平壤】자는병이 평양에도 차저와서 대소동을 일으키고잇다 사동 해군광업부(寺洞海軍鑛業部)광부의 아들 리일선(李日善)은 륙일전부터 발병하여계속하여 자고만 잇슴으로 광업부의무실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하엿스나 여전히 계속하여 자고잇서 아모리 흔드러 깨워도 깨지못하고잇다 수일전에는 진남포(鎭南浦)에서 두명이 발생햇고 이번에는 사동서 발생햇스므로 평양시내에서도 공포를 늣기고잇는터이라한다

七十歲老人夫가
팔풍라다轢死

【熙川】평북희천양서면(平北熙川陽西面)에서는 신재원(申在元)이라는 로인이 지난팔일오후 희천역(熙川驛)에서 팔백십삼호렬차에 치어서 무참히도 사망하엿는데 전긔신씨는생활난으로 약이개월전에 자긔고향을등지고 희천에와서 긔차화물운반의 품파리를 하여오든바 그날도 밤차시간을 리용하여 나가다가 긔관차시운전에 미처피치못하고 그와가티 무참한죽엄을 당한것인데 운전수 하하(運轉手河下)와 감독역부 김응순(監督驛夫金應淳)은 부주의로 경찰의 취조를받는중이라고 한다

各村落을巡廻하야
四百餘患者施療
公醫薛德祚氏美擧

【咸興】단천군 남두일면 거보리(端川郡南斗日面巨保里) 공의 설덕조(薛德祚)씨는 금년사월에 동지에 부임한 이래 항상 빈곤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야서 리근 주민들의 찬양이극히 놉든바 다시 칠월 십일부터 팔월 이십일까지 사십일간 각촌락을 순회 무료진료를 시작하여 사백여명의 다수환자를 한눈의 진료와 약갑도 밧지안코 치료하여주엇다고 하는데 동지주민들은 참으로 활불처럼생각하고잇다한다

素砂　讀者慰安의밤

▲時日 陰八月十四日부터三日間
▲場所 素砂振興館
◇主催 朝鮮日報素砂支局
◇後援 振興館館友會

大邱　讀者慰安 舞踊과映畫의밤

▲時日 九月十二日(秋夕日)晝夜二回
▲場所 於大邱公會堂
(場所整頓費十錢徵收)
◇主催 朝鮮日報社大邱支局

그女子의一生 (206)
春園 作　夕影 畫
回光篇

그래도 어떠케 잠이 들엇든가 종소리에 깨것은 새벽 세시。

금봉은 밝게 나갓다。별시빗이겟지、훤한 중에 사람들이 소리업시 오락가락 하는것이 보엿다。어떤 사람은 머리만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방에서 흘러나오는 불시빗에 아렛도리만도 보이고、어떤 사람은·다리는 업시 우동만도 보이고、도모지 산 사람들 갓지를 아니하엿다。

어떤 사람이 금봉을 보고 합장하엿다。금봉도엄시결에 합장하고 허리를 굽혓다。

어떤 사람이 금봉에게 세숫물을 떠다주엇다。금봉은 합장하기를 이저버려서 어두운 속에서 혼자 낫을 붉혓다。요다음에는 누구를 대하거나 합장하리라하엿다。

소금으로 이를 닥고 세수를 하엿다。물이 손끄티 저리도록 차다。찬물은 금봉의 머리를무척 시언케하엿다。새벽 공긔가 모시적삼에는 치울 지경이엇다。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낫츨씻노라니 어듸선지 어떤 사람이 와서 세숫대야를 집어갓다。세숫물을 버려주는것이다。누가 어듸 지켜섯다가 이러케 시중을 해주는것인고。금봉은 어두운 속에서 허공을 향하야 합장하엿다。

이러고 잇는데 또 웬 목소리가、

『뒤깐에가시지오』

하엿다。금봉은 어떤 사람의 등을 보앗다。그 등을 따랏다。

멀고먼 절 뒤깐이다。압선 사람은 가끔 금봉의 손을 잡아서 끌엇다。그것은 위태한 곳이엇다。손은 부드러운 여자의 손이엇다。

뒤깐 문 압헤서 그사람은 뒤지를 금봉에게 주엇다。뒤 보고 나온 때에는、

『손 씻으시지』

하고 조고마한 양철통에 물을 들고 섯다。그가 끼언저주는 물에 손을 씻은 뒤에는 그 사람은 수건을 금봉에게 주엇다。그리고는 또 압서서 금봉을 인도하야 마당까지 오고는 어듸로 가버리고 말앗다。금봉은 이사람이 어떠케 생긴 사람인지 무론 모른다。

큰 방에서 종 소리가 난다。금봉은 손으로 머리를쓰다듬고 큰 방으로 들어갓다。

어제 저녁모양으로 둘러안즌다。어떤 사람이 금봉의 압헤도 방석을 노하준다。노장이 입을 열어、

『헤아릴수업는 옛날부터 세세생생에 무명 속에 싸하오던 업장과 눈、귀、코、입、몸、맘의 모든 번노를 불살라버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시방 삼세에 늘 겨오신 부처님네와 보살님네께 뵈와 그 가르치심을 듯자옵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고각 놉흔 도를 닥사와 등정각을 일우어 삼게의 모든 중생을 건지리라는 큰 원을 발한 우리오니 자비심이라는 부처님의 집에 들어 유화인욕이라는 부처님의 옷을 입삽고 일체법공이라는 부처님의 자리에 안저 중생에게 대승의 불법을 설하게되라며는 우리는 술틀비스자 참올인스자 부일공스자로 마음을 꼭 잡아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고 마음에 끌리는 내가 되어서는 안되는것이랑 모든 번노를 다 불살우고 마음을 고요한 물과가티 잘 닥근 거울과 가티 만든때에 마하반야파라밀、일체종지를 엇겟성결들을 하는것이니 모도 큰 정진력을 발하야 이 자리에서 끗을 보고야 일어서겟다는 결심으로』

하고는 목탁을 한번 딱 치고 가만히 안는다。

금봉도 마음을 꼭 붓들고 안젓다。

이 모양으로 오륙일이 지낫다。

금봉은 이 생활에 좀 연단이 되어서 아홉시에 자리에 누으면 곳 잠이 들고 새벽 세시에 잠이 깨면 제 발로 나가 세수도 하고 뒤깐에도 가곡 무서운 생각도 줄고、무엇보다도 그지긋지긋한 허개비와 공상도 숨어서 참선자리에 안즈면 마음이 조용한 때가 점점 길어젓다 그리고 말은 아니 하여도 이 사람들이 여긔 모혀서 하는것이 무엇인지도 대강 짐작이 되고 그 규측적이오、말업고、밧브고、겸손하고、참회적이오、경건한 생활에 흥미도 가지게되엇다。금봉은 제 옷을 제 손으로 빨아서 밟아 입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도라지도 캐엇다。그러나 일컬이 어떠케 되나 하는 망연한 생각은 슬지를 아니하엿다。

有利事業

사람은 언제든지 한가지 事業은 반드시해야만 이세상에서 사러갈수잇는 것이다。누구나 有利한事業만잇다면 남보다먼저 할나고하는것이 事實이다。그런데 有利한事業이잇서야 하지안습니까。本所에서는 一般에게 傳授하게 着眼하고 여러가지의 有利한 事業을골나서 一冊에 이오니 누구나 有意하신분은 二錢郵票를添付하야 定價書를請求하시오

▲有利事業의一部分=●各種石鹼●各種醬油●洋酒●食酢(酢の素)●サイダー●各種白粉●各種クリーム●各種香水●各種ポマード●各種香油●其他日用品、化粧品七十餘種

工業原料 釀造材料 直輸入商 (榮) 榮信社工業所 京城鍾路四丁目一 振替京城二一〇五五番 電話光化門二一二四番

京城秋季競馬會

九月 十四日(土) 十五日(日) 廿一日(土) 廿二日(日) 廿三日(月) 廿四日(祭) 廿八日(土) 廿九日(日) 開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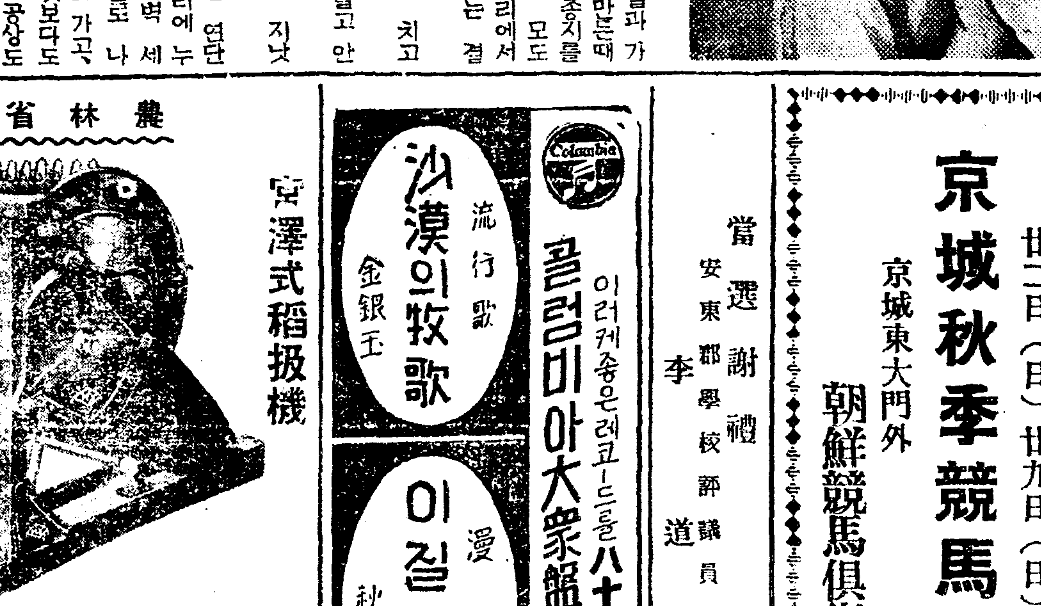
京城東大門外 朝鮮競馬俱樂部

當選謝禮　安東郡學校評議員　李道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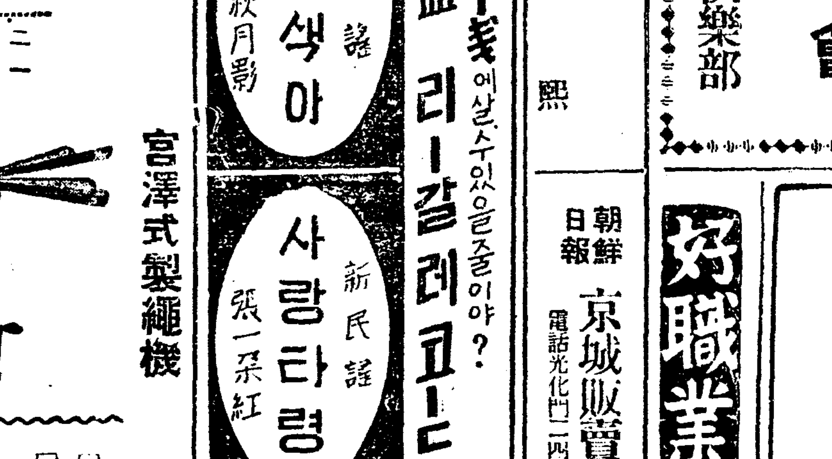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話光化門二四九番

Columbia 이러케좋은레코-드를八十錢에살수있을줄이야?
콜럼비아大衆盤 리-갈레코-드
流行歌 沙漠의牧歌 金銀玉
漫謠 이질색아 秋月影
新民謠 사랑타령 張一采紅

農林省御推奬
製造原價販賣開始
宮澤式稻扱機



二人用 鋼骨製
一人用 木枠製



宮澤式製繩機
漁網用 細繩用 動力用 各種
特約店募集 (製繩進呈)
稻扱機 製繩機 除草機 麥打機
兵庫縣加古郡天滿 宮澤農具製作所 振替大阪八六九一番

金銀 福 白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受信略號(ヘイウゼイシフク)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動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天軌組生駒停留所前 博文社

九月七日낫부터 每日三回興行 午正十二時 午後三時半 午後八時
金剛키네마第六回大作品巨豪版 ‖封切週間‖
原作脚色 李明雨 監督 安鍾和
撮影 李明雨
主演 李源鎔 申一仙 朴慶子
助演 李慶善 沈影 金寅圭 柳新花 朴濟行 金順子 李銀
學生映畫 銀河에흐르는情熱
朝鮮初有의學生映畫로映畫史上에 最高王座를占據한前千篇! 學生生活을超現代化한感激과銳角的描寫! 그대로描寫한名譜! 朝鮮天才 올스타總網羅
콜럼비아社超特日本版 가니ー발 主演 사리、아이라스孃

仁寺洞 電光二三六 朝鮮劇場
九月九日밤부터大公開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 土曜、日曜、祭日은晝夜二回 낫一時 밤七時半始映
메도로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爆笑劇 快賊떼아보로 全九卷 監督…할로ー지氏 主演…스탄로렐氏 오리바하데이氏
大都映畫社超特作品 現代劇 與太者氣質 全六卷 監督…田中重雄氏 主演…中野健治氏 河合眞美子孃
부리모스社特作品 處女의決死 全六卷 監督…징파데이뷔氏 主演…조셉쉴氏
豫告=九月十二日부터=스타당주 九月十五日부터= 鑛山王

麻浦桃花洞 電話 一二五番 桃花劇場

經濟解說 "米價의焦點" 新穀出廻期前後 ②

申泰湖

오늘에 있어서 米價로하여금 最高公定價를 限界로한 上昇가 을 保持케하는 米價高政策은 米價低落을 防止하는 農村經濟를 振作함에 그 主眼點이 있는것은 다시 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이미 쌀이 農家의 손을 떠나고 있을뿐만아니라 이달과 來月만 지내면 新穀이 나오게될 이때에 米價高라는것은 何等 意義가 없게되며 돌이혀 이로서 消費者는 勿論 農家의 食糧上 直接 或은 間接的으로 威脅을 感케하는 結果가 되다 그럼으로 米價崩落을 招致치안홀 程度에서 그 騰勢를 緩和케하라고 對策을 講究케되는것은 必然의 理致이다 그런대 이때에서 米價高를 緩和케함에 있어서 가장 憂慮를 要치안치 못할 點이 있다 卽

×

지금에 米價高를 緩和케하여 온것이 新穀出廻期의 米價를 떠려트리는 結果가 될念慮가 있다는것이다 新穀出廻期는 農家의 換金的 賣物이 遝至케되는만큼 米價低落을 보기쉬운것이 거의 年例인데 이곳에다가 端境期로부터 米價低가 附帶케되면 더욱 新穀出廻期의 市勢를 崩壞케하는 作用을 보게될危險이 있다 그럼으로 前回에서 말한바와 가티 政府가 오늘의 米價高緩和에 對하야 腐心을 하면서도 實際에 있어서는 充分한 그對策을 베풀지못하고 微溫的의 兩端方法에 끄치고마는 苦衷이 잇슴을 이곳에서 엿볼수있다 그러고 買換、賣却의 兩端方法에 依함은 前例가 不無한바이나 오늘과 가티 端境期에 있어서 그兩端方法에 依한것은 그前例가 업다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하면 米穀對策이 그처럼 微妙한關係를맺게 漸次複雜化함을 말하는것으로 볼수가있다

×

그래서 將來할 新穀出廻期의 米價位置는 어떠한곳에 잇슬것으로볼가 이것을 다시말하면 오늘의米價高가 그때까지 繼續하야 保持케될가 그럿치안코 오늘의 米價高에對한 反動低가 新穀出廻期를 樓로 나타나게 되지안홀가 함을 살핌에있서는 大體 다음과가튼 두가지의事情이 어떠케 展開될가함에 달렷다고 생각한다

(一) 日本內地와 朝鮮의今年米作에對한 狀況을 普通作으로보아 平年作은 無難할것이라는豫想이 果然 實收에있서도 들어맞을는 豫想으로될가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압호로稍作이 支障업시 順調로 結實을 보게되야 오늘의豫想과가티 平年作以上의 數字가 되고 못될에 딸어서 米價의趨向을左右함이 大케될것이라고 본다 果然오늘의 豫想에큰變化가 업시 平年作以上의 收穫으로 된境遇에는 오늘의米價高가 그反動的低落을 나타나게될 可能性이 만흘것이다 그럿치안코 오늘의 豫想과 背馳되는 收穫이될境遇에는 或은 오늘의米價高가 容易히 完全한解消를 보기어렵게될는지 모른다는點이다

×

(二) 다음에는 買換과 賣却의兩端方法이 平年作의境遇에 政府의目標대로 米價高의反動低落을 막게될수있슬가 하는點이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에있서 豫信을 갓기가 어려우나 新穀出廻期에있서 米價가 떠러질境遇에는 이미 買換을 條件으로 拂下한數量만큼은 買入할수있는 때문으로 오늘의 米價高에 對한 反動的低落을 어느程度까지 막을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치만 大勢上으로 늘리는 低落을 全然 그買換程度의 買入만으로서 그阻止가 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볼수도잇다 그런때문으로 오늘에있어서 이兩端方法의 米拂下에對한 新穀出廻期에있서 큰期待를 가지기어렵고 딸어서 新穀出廻期의 米價에對하야 農家로서 不安의念을 갓게되는 傾向도 不無한터이다 (續)

朝鮮內米不足深刻 移出激減、移入增加

中間輸移出四分一로、輸移入卄七倍增

輸移出累計도七萬石減

朝鮮內의 米穀品薄은 去益深刻하야 移出激減、移入增加가 顯著케되어 八月上旬 米粟輸入 槪算調査에依하면 中旬의 輸移出은 勤히五萬五千九百石으로 前年同期의 四分一以下로 激減된一方 輸移入은 前年同期에比하야 二十七倍인 二萬七千石을 示하얏다。輸移出累計에있어서도 合計 八百三十六萬石으로서 前年同期보다 七萬六千餘石減이오 輸移入은二十四萬七千百石으로 前年의二倍半에達하얏다

粟輸入六千石增=粟輸入高는 八月上旬二萬二千五百萬石으로 前年同期보다 六千石增이오 輸入累計에있서는 百二萬九千七百石으로 比前年同期 二千餘萬石減이엇다。

▲米輸移出高 (玄米換算單位石)

	輸出 今年	輸出 前年	移出 今年	移出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上旬	三、一八	五、〇四	五二、七八六	三三五、五一六	五五、九六七	三四〇、五二〇
十一月後累計	二九、八七	九九、五三七	八、三〇七、五三二	八、三六六、七〇四	八、三三六、一二〇	八、四六六、二四一

▲米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上旬	九	—	二七、九二五	九九三	二七、九三四	九九三
十一月後累計	一五一	三四三	二四七、四三三	九八、〇三〇	二四七、五八四	九八、三七三

▲粟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上旬	三二、五五五	二六、六四八	—	—	三二、五五五	二六、六四八
十一月後累計	一〇二九、七〇六	一二四六、九六六	二七、四四四	四三七	一〇五七、一五〇	一二四七、四〇三

染色物移入 朝鮮은不必要

日本內地側要望一蹴

日本內地의 織物染色工業組合聯合會代表數名은 近間入京하야生地物의 朝鮮移出禁止或은 台灣朝鮮을 統制에서 除外하던지 何等의 打開策에對하야 總督府當局과 在京當業者와 懇談交涉할터인데 右에對하야 朝鮮側當業者는 朝鮮內에는 別個로 織物組合의 組織을보고 其中에는이미 染色部가 設置되어 日本內地로부터 染色物의 移入이必要치안음으로 斷然 日本內地側의 要求를 一蹴한다 特히日本內地의 聯合會는 輸出에對한 機能으로서 單純한 對內消費를目標로하지안는 機構인以上 對朝鮮移出關係에 拘泥함은 得當치못하다고 말하고잇다。

大日本紡績 永登浦工場 決定은流說

最近大日本紡績의 朝鮮工場이永登浦에 確定되엇다는 說이傳하야 各方面의 注目을 惹起코잇는데 同社가 朝鮮進出을 企하고 適當한 敷地를 物色하여就中 永登浦를 有力候補地로서着目하고잇슴은事實이나 目下未決定이오 如斯한 流說로 關係方面에서는 困難을밧고잇다한다。

結城興銀總裁重任

【電通東京電話】結城興銀總裁는 十日로서 任期滿了이던바 重任키로되어 十一日大藏省으로부터 如左히 發令되엇다

從六位勳六等 結城豐太郎 株式會社日本興業銀行總裁被仰付

各製絲會社에서 桑田 養蠶 小作制計畫

◇……原料繭不足을解決하고저 總督府도支持할貌樣

原料繭不足을 歎하는 製絲會社에서는 明年度以後 桑田의助減額에依하야 更히 繭增産의 停滯가 豫想됨으로 自衛策으로서 昭和六年 前後부터 有力製絲가 試驗的으로 着手하얏던 桑田小作乃至 養蠶小作制를 擴充하고 原料繭不足에 對處코저하는 傾向이 强케되엇다한다。

桑田小作 乃至 養蠶小作의實施는 産繭을 自家에 確保할수 잇는데다가 産繭改良、品種의 製造、統一의 自由인 利便이잇다한다。

片倉을 비롯하야 鐘紡郡是、道是等의 各社에서는 好績에鑑하야 各其明年以降부터 擴充할 計畫이오 總督府에서는 今後의 朝鮮內産繭增大는 集約獎勵와 特殊的助長策의 二途以外에 업다하야 養蠶小作制는 合理的方法이라고 計畫을支持하고잇다한다

絲價의强調로 養蠶家採算有利

繭은昨年의十割高

昨今 夏秋繭共販出廻의 最盛期에 入하얏는데 繼續하야 生絲市況은 强調保合을 繼續하고七百七十圓—七百五十圓의高價를維持하고잇슴으로 共販繭目도 最低二十九掛五分 最高三十一掛五分으로 오래간만의 好勢임으로 이것을 昨年의 十四、五掛에比하면 養蠶家의 採算은 好轉된 터이라겟고 夏秋繭高로 農村의 收益增大를 推算하면 産額 二十四萬名(八十八萬七千貫)으로보아 昨年의 平均價格이一圓四十四錢 今年은 十割高임으로 結局收入增加만 百三十萬圓을突破할듯하다한다。

九年度國庫現計

歲入超過八千四百萬圓 租稅增收六千萬圓

【東京電話聯合】昭和九年度歲入現計는 歲出에比하야 八千三百九十七萬八千圓의 歲入超過로 剩餘金一千百四十九萬圓이엇다。歲入增은 所得稅、營業收益稅、關稅等의 租稅增收、歲出不要額等의 結果로 生한것으로 租稅와 如함은 豫算額에 比하야 六千七百九萬圓의 增加를 示하고 原料工業輸出工業等의 躍進的發展을 讚하야 過去의 最高記錄인 昭和三年 租稅收入을 突破키에至하얏다。最近 各地方稅務署에서 多少稅收入을 過大히 調定하는 嫌疑가잇는듯이 傳하는便이잇스나 右와如한 自然增收의好轉은明年度豫算歲入豫想에 當하야 樂觀의空氣를 與하고 明年度豫算에잇서 依然히 一億圓까지는 自然增收가 豫想되리라한다

公債發行不要額 一億三千餘萬圓

【東京電話聯合】大藏省發表의昭和九年度最終國庫現計에 依하면 同年度의 公債發行額은 七億四千二百五十四萬二千圓으로 豫算面의 新規發行豫定額 八億八千百十萬八千圓에比하야 一億三千八百五十六萬六千圓이라는 巨額의公債發行不要를 生하얏다。이것은 租稅及地稅收入의自然增收에 基한것으로 昭和十年度에잇서도 經濟界의基調에變化가업는限 公債發行의增減이 期待된다한다

資源調査委員會

川久保內閣資源局長官一行의 入京을機會로 總督府에서는 十一二兩日의豫定으로 第一會議室에서 第三回朝鮮資源調査委員會를 開催하고 第一日은 午前九時부터 總督府側으로부터 今井田政務總監 以下 法務를除한 各局長 棟居事務官、委員으로서 御用掛各課長等 二十二名이參加하고 資源局側으로부터 川久保長官、厚東、加藤、勝田 各事務官、田中、兒玉兩技師 軍部關係、務省、朝鮮軍에서도 列席하야 今井田委員長 司會下에開會되엇다

米穀現在高 第二次發表

【東京電話聯合】農林省第二次發表=九月一日米穀現在高 山形 外十三地方의分은 日本內地米四百十九萬八千二百四十八石、朝鮮米八千六百三十六石、臺灣米四萬九百六十三石、外國米二石、合計四百二十四萬三千八百四十九石으로서 第一次發表의 分과의 合計는 六百三十五萬二千八百五十三石이오 前年同期의 七百六十五萬三千六百六十八石에 比하면 百三十萬八百十五石의 減少이다。

繰越과剩餘額

【電通東京電話】大藏省發表、昭和九年度最終國庫現計에 있서 各省歲出 翌年度繰越額과 剩餘額은如左하다 (單位千圓)

翌年度繰越額 經常部	一、七一六
臨時部	七七、四五二
剩餘額 經常部	二三、九七五
臨時部	九、七四九

米日貨替小高

【經濟十日發聯合】今日의米日貨替는前日과比하면 賣二十九弗九仙으로 二仙高이오 買二十九弗七仙으로 二仙高이다

東京爲替(十一日)

	賣	買
對米	二十九弗	二十九弗二分一
對英	一志二片八分一	一志二片卅二分五

大阪爲替(十一日)

	賣	買
對米	二十九弗	二十九弗十六分
對英	一志二片八分一	一志二片卅二分五

今日財界 (十一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低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低
㊂三等米 一石	[illegible]	[illegible]低
東京一等白米百斤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改良	[illegible]	[illegible]
一斤 價 在來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融價 一匁貴 一匁賀 十二圓[illegible]錢 十二圓[illegible]錢 銀塊 [illegible]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今日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高
東新	[illegible]	[illegible]高
日産	[illegible]	[illegible]高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高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低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高
大阪砂糖	—	—
고무現	[illegible]	先[illegible]

滿洲關稅引下後 「고무」靴輸出增加

稅率低減으로密輸防止

滿洲國의 關稅率引下 問題는去益高唱되는中인데 이低減에 依하야 朝鮮의 滿洲貿易關係及密輸의 防止에顯著히 好影을與하는것은 現在綿布로보아도 明白한일이다 고무靴와 如한것은 稅率 一割七分五厘時代인 昭和八年에는 八十三萬六千餘圓 이던것이 一割로 低減된 昨年度는 百二萬二千餘圓에 增加되엇고 稅率引下에伴한 密輸減退의 反面、正當輸出增加의實情을 如實히 證코서잇다。右改正은 昨年十一月부터임에 不拘코 이增加趨勢를보아 今年의고무靴輸出은相當히 增加될것이라고 豫想되다한다

滿洲國對外貿易

【新京十一日發聯合】滿洲國七月中의 對外貿易은 七千九百三十九萬三千百五十九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七百萬餘圓의 減少를示하고 入超額은 一千四百餘萬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百四十餘萬圓의 增加이엇다 (單位千圓)

輸出	三一、二七九
輸入	四七、一一三
合計	七九、三九三
入超	一四、八三三
國別	
日本	四四、六三一
朝鮮	四、〇二二
中國	九、一〇九
獨逸	三、九〇五
米國	二、九一三
蘭印	二、七五七
英國	二、三三四
▲重要輸出品	
大豆	一二、〇四四
豆粕	五、〇六五
石炭	二、九九四
電氣用品	一、四九七
豆油	一、一七八
▲重要輸入品	
鐵及鋼	五、四七八
小麥	四、一四八
車輛及船舶	四、一一二
機械及工具	二、六九二

京城商議改選期

現議員斷念三分一以上?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十二日現在로서 有權者名簿의 作成에着

大阪神戶荷主代表 新契約協議로入京

大阪、神戶의朝鮮米受荷主諸團體代表一行은 十日 大阪發 群山 仁川을經由하야 十五日頃 入京하고 右兩地荷主를비롯하야 京城荷主와 新積取協定締結에關한 協議를 行키로되엇다

大連汽船도 新協定에加入?

朝鮮米新積取協定에 大連汽船도 加盟希望을 가지고 目下 同社營業課長이 朝鮮에와서 關係各地荷主의 諒解를 得하는 中인데 新協定趣旨로보아 當然 加盟할것이라고 觀測되다한다

滿洲에輸出하는 電球의通關手續

【新義州】今年五月十一日부터施行하는 營利의目的으로 輸出하는 電球에對하야는 朝鮮産의것은 勿論日本內地産이라도 모다 同規則에 依하야 電球輸出同業組合(現在는釜山에 一個所뿐)檢査에 合格한것이든지 또는 朝鮮總督의 認可를受한것이라야 되는데 이것은모다 特殊의것이나 貨主가 通關手續에 關하야 何等意思표가업는限 總히安東驛에서 通關手續을하기로 되여잇는 關係上 從來日本內地의 檢査에合格한 電球로서 輸出通關手續未濟대로 오는것이 만허 이것은 安東驛에서 通關手續을할때 다시 朝鮮에서의 檢査又는 認可를 要하게되고 따라서 同驛에 留置가되든지 返送을 하게되는 等不測의 損害를 蒙하는일이 적지안흔것가튼데 此等은 日本內地서 發送할때 日本內地稅關에서 通關手續을하야가지고오면 問題가 업는 것임으로 今後 日本內地로부터 滿洲에 電球를 輸出하려는者는 必히 日本內地서 輸出通關手續을 畢하고오도록 注意할것이다 또日本內地稅關所在地外의 驛으로부터 發送하는것으로 日本內地에서 通關手續을할 必要가 잇는것에 對하야는 貨主의 希望에 依하야 下關驛에서 通關手續을 할수잇게되엇다한다。

株式 伊에險惡 暴騰

商況(十一日)

前場小堅 今前場은 依然保合圈이나 小堅商勢이엇스니 即 昨後引에比하야 東新五十錢高인 百四十二圓三十錢、日産二十錢高인七十六圓七十錢、大新三十錢高인八十七圓十錢、拓新十一圓二十錢에 各大引、朝取六十一圓六十錢、朝新二十五圓八、九十錢、鐘新百二十圓五十錢、勞人百二十三圓五十錢이잇섯다。

後場急騰 『伊에』關係險惡化로東京高를 移하야 後場諸株上放하야 東新百四十三圓九十錢 日産七十七圓十錢 大新八十八圓十錢에好勢裡寄後 强調이엇는데 大阪後引은 大新八十九圓二十錢 東新百四十五圓丁에 暴騰이엇다。

伊太利動員說 東新煎上急騰

【大阪電話商通】聯盟理事會의和平協定不可能에 依하야 伊『에』

紛爭不可避

紛爭不可避로되고 伊太利動員說을傳하야 株式의 買氣勢를하야 東京新東에 三幅의 飛騰 四千枚가 나타나서 東京高로 一齊勢騰이엇다

第二段階는 實勢如何로

八月以來의 株式騰貴는 過去目的으로 떠려진것의 當然한 反動으로서 高利의 修正運動이엇스나 그것이 大略 達成되엇다면 그以上의 上昇過程을取함에는 現實의 業績에 依하여야할것이다。産動界에는 아즉 不安事情이잇서 能能的活躍時待가 豫想되든 此際임으로 低金利景氣만가지고는 買進할수업서 利廻修正一巡의 株式市勢의 第二段階는 今後實勢如何에 依할것이라는 말이잇다

買氣俄然擡頭 重視되는今後

바라는 『伊에』關係은 얼는시작되지안코 日中提携란것도 具體化되지안흐며 明年度豫算編成은 軍部態度强硬으로보아 難相과의 妥協이되지 疑問으로 增稅問題가를것이 또 뛰어나오기 十、八、九이며 東新에는 東株不良取引員整理問題가 잇는것등으로 積極買氣가 不起하고 上旬貿易大出超도 이러다할 好感이어시 올르지를못하던것이 伊太利動員說에 商勢俄然硬化하얏는바 今後果如何

强氣論者는 軍需株益期待

財界根底에는 悲觀할것이 업고 『伊에』問題가 아즉戰爭? 和協? 이未知數이나 설령戰爭이곳 시작되지안는다한지라도 膿處가 內訌하는것과가틀것이니 各國은一層軍備擴張에 注力하야 軍需株工業株中心으로 더욱買進될것이다 그리고 雜株가循環的으로 買進되는點에 强味가잇는것으로 物色買는 依然繼續될것이라는 强氣論이잇는터이다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高
日産	三一	五七	五四五一〇
東新	四〇	五三	八三六九〇
大新	二九	六一	七九四〇〇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枚 ▲東邦電力[illegible] ▲同新[illegible] ▲帝國製麻[illegible] ▲帝麻新[illegible] ▲大同電力新[illegible] ▲日本郵船[illegible] ▲[illegible] ▲滿洲電信電話[illegible]

東京國債市場

【電通東京電話】株式市場에活況을 移하야 一齊買人氣로 分債一齊五錢高佛貨拾錢 米貨債八九十錢高로 好調를 呈하얏다

甲 五分利 一〇四、二〇

期米 過賣反動 急落

前場瓦落 昨後場 阪地二十九圓八十一錢止와共히 二十七圓四十四錢에 據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 二十九圓七十一錢인 十丁反落을보고 二十七圓四十錢인 四丁低로寄하고 始한後 阪地稍軟하야 結局 四十二錢의 最低로止하고 前에比하야 ○四錢의 最低로 軟弱히 止하엿다

後場低迷 後場은 二十七圓十五錢에 十丁高로 始하야 後二、三節二十一錢에 稍反이엇스나 六節十二錢에 閉하고 引續 止揚하다。

策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 九一六 六九三 一二六五

大勢는一轉乎 賣方의活舞臺、

去六月中에 二十六圓七十五錢의 最低價를내고 昂騰途程에入한 當地市勢는 二個月間 續騰으로 二十九圓八十錢의 高價를 示하엿섯다 그翌月부터는 新米建으로 三十九丁의 大下落로 十月限이 發盛되엿스나 大勢는 依然底强하야 客月에納會된當限은 三十一圓五十錢까지 昂騰한바이섯스며 本月의當限도 三十一圓七十錢臺까지 昂騰하야 昭和四年以來의 初有高價를보이엇다。이와가타 市勢는 破天荒의 大勢를 演出하야 最高公定米價를突破함에 至하엿다。此에는 買告가 衰蔽할뿐아니라 朝鮮及日本內地의 米作이 平年作을 氣하게되며 日氣도 順調로 恢復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丸玉取引店 柳來恒氏引受

十數年間 朝鮮取引所 米豆取引員으로 從事하든 丸玉取引店金仁梧氏는 事情에依하야 引退하고 柳來恒氏가 同取引店을 引受하기로되어 取引所를 經由하야 當局에 認可申請中이든바 今月十日付로 同氏에게 免許되엇다한다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賣方 地場東京側乘換、來客側投 ▲買方 田中貞、神戶側、地場押目買

各地正米

京城低落 依然買物薄商面이나 定期의慘落으로 刺戟되어 氣配二十錢低落인 丸仁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三十錢 一等白米二十三圓丁

仁川反落 買物拂底로 取引中絕이나마 定期의崩落을 듯고 氣配二十錢反落인㊂三等 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三十錢 一等白米 二十三圓四十錢

釜山軟化 定期의續落을 보고 精米原料로 極히消極的이오

大邱硬化 低位는 買氣 濟在이나마 所持는低價賣止모양으로 賣物이업고 閑況裡面이나 氣配十錢硬化인 角ㇰ三等三十一圓八十錢 四等三十一圓五十錢 一等白米二十三圓二十錢

群山保合 日本內地는 堅下米의 好價行과 淸算延期를 듯고 注文中絕이오 市況保合인 菱ㇰ三等三十一圓四十錢 四等三十一圓 一等白米二十四圓丁

木浦不動 精米原料準備도 極少量의 取引이잇슬뿐모양이나 依然活氣가 乏한 菱商面인 丸ホ多摩三等三十一圓九十錢 雄町三等三十一圓四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二十二圓八十錢

南浦下漲 期米低落을 示하나 依然買物皆無의 市勢는 訂正되지안어 市勢는 下漲인 ㊉銀三等三十一圓四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 十三圓四十錢

株式 市場六感 期米

株 伊太利動員說伊『에』開戰不可避로보아東京新 百四十四圓臺로 前上이대로 戰爭市勢? ▲取引所株特히 東新을 全株界投機의 唯一한 目標로하야 平時에도 五圓은 恒茶飯이오 종원만하면 十圓以上騰落을 演하는것은 昔日之夢 ▲雜株를『리ー드』하며 財界의『바라메타』의 稱이어던 東新에對하야『가을』市勢의 前驅가되리라고 바랄도 無理가아니겟스나 ▲東新의 時代性이 變遷인것을奈何? 어듸까지던지 探算에立脚하야『物色買』三字에徹하는 株界가되고말엇스니 무엇으로 東新이올를수잇슬가? ▲그것도 伊『에』開戰이나된다면 人氣的으로 東新에도 모르나 그러타드래도 그는 絶好의 賣場되기十常八九 ▲無力할사 東新이여 去勢된 東新이여! ▲이러한東新을 惟一의 投機目標로 依然固守하는 朝取廳券市場에도 戰爭時代가 나올가? 안나올가?

米 去七日에 二十八圓○七錢까지 昂騰하엿든 市勢는 今朝二十七圓○臺로 反落 ▲그低落의 步幅은不知中 百圓丁이나되다 아즉도 餘勢는 軟弱 ▲此에서 又復 續落을할지는 疑問이나 當分『모도리』賣가 得意일지도 亦未知 ▲그러데 中限은 地場有力側의 賣買成玉만이지 又一層 威力을加하야 八圓八十錢臺로 反落 ▲그러나 當限은 依然渡米의 調達의 如意치못할것을 豫期하고 三十一圓三四十錢臺를 維持할뿐 ▲果然 今後의 天候가 何如할지 此가注目處인데 黃熟期에 入하기까지 別災害가 업는때에는 又復 數段瓦落을 告할지도 亦未知 ▲當地 丸玉取引店金仁梧氏는 事情에依하야 引退하고 柳來恒氏가 그名義를 引受하기로되어 去十日付로 免許 ▲同店은 元來 白衣軍의陣營으로서 依然 變치안코 將來發展을 期할모양

金融 (十一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絹布 ◆日本麥粉市勢 ◆카프期麥 ◆綿油冲價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豆粕冲價 ◆朝取短期 ◆大阪短期 ◆大阪長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短期 ◆東京現株 ◆朝取期米 ◆大阪期米 ◆朝鮮內各地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東京期米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各地期米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

金 白·銀 金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〇番地(小廣橋側) 電話光化門五二八番 振替京城五壹五四番 應酬賣買 販賣引換 送料先金 地方註文